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나’와 ‘우리’의 사용 양상 연구



2018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QIAO DAN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나’와 ‘우리’의 사용 양상 연구

지도교수 권 성 미

이 논문을 문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QIAO DAN

QIAO DAN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8월 24일



위원장 언어학박사 김희섭 (인)

위원 문학박사 채영희 (인)

위원 문학박사 권성미 (인)

목 차

| | |
|-------------------------------|----|
| * Abstract | iv |
| I. 서 론 | 1 |
| 1.1. 연구의 목적 | 1 |
| 1.2. 선행 연구 고찰 및 필요성 | 2 |
| 1.3. 연구 방법 | 10 |
| II. 이론적 배경 | 13 |
| 2.1. 한·중 인칭대명사 체계 | 13 |
| 2.2. ‘나’와 ‘我, 咱’의 대비 | 18 |
| 2.3. ‘우리’와 ‘我們, 咱們’의 대비 | 29 |
| III. 연구 방법 | 44 |
| 3.1 연구 대상 | 44 |
| 3.2 연구 도구 | 47 |
| IV. 결과 분석 | 51 |
| 4.1 ‘나’의 사용 양상 | 51 |
| 4.2 ‘우리’의 사용 양상 | 56 |
| V. 결론 | 64 |
| 참고문헌 | 66 |
| 국문초록 | 69 |
| 부록 | 71 |

<표 목차>

| | |
|--|----|
| <표1> 이익섭의 한국어 인칭 대명사 체계 | 13 |
| <표2> 중국어 인칭 대명사 체계 | 16 |
| <표3> 김혜령(2016) ‘나’의 의미 분석 | 20 |
| <표4> ‘나’와 ‘我, 咱’의 공통점과 차이점 | 27 |
| <표5> 김혜령(2016) ‘우리’의 의미 분석 | 33 |
| <표6> ‘우리’와 ‘我們, 咱們’의 공통점과 차이점 | 41 |
| <표7> 한국어 모어 화자 연구 대상 | 46 |
| <표8> 중국인 학습자 연구 대상 | 46 |
| <표9> 정답률 계산하는 방법 | 48 |
| <표10> ‘나’와‘우리’의미 용법에 따른 문항의 유형 | 48 |
| <표11> 설문지 일부 - 선다형 문항 | 49 |
| <표12> 설문지 일부 - 판정식 문항 | 50 |
| <표13>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 ‘나’의 용법에 대한 t검정 결과 | 51 |
| <표14> ‘나’의 용법에 정답률 비교 그래프 | 52 |
| <표15> 중급과 고급 집단의‘나’의 사용 양상에 대한 t 검정 결과 | 53 |
| <표16> ‘나’의 용법 항목별 오류 양상 | 54 |
| <표17>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 ‘우리’의 용법에 대한 t검정 결과 | 56 |
| <표18> ‘우리’의 용법에 정답률 비교 그래프 | 57 |
| <표19> 중급과 고급 집단의‘우리’의 사용 양상에 대한 t 검정 결과 | 58 |
| <표20> ‘우리’의 각 용법 항목에 세부 평균 정답률 비교 | 59 |
| <표21> ‘우리’의 용법 항목별 오류 양상 | 60 |
| <표22> ‘나’와‘우리’ 선택한 원인 분석 | 62 |

<그림1> ‘나’의 사용 양상 분석 55
<그림2> ‘우리’의 사용 양상 분석 61



A Study on Use of 'na' and 'uri' by Chinese Learners of Korean

QIAO DA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Master of Art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Chinese learners of the Korean Language's use of the 'na' and 'uri' expression patter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s usage between Chinese learners and Korean learners. It aims to help Chinese learners of the Korean Language to know more about how to use 'na' and 'uri' correctly by analyze the common and differences.

Firstly, we explained the usage, purpose and necessity of studying the usage of Korean 'na' and 'uri' by Chinese learners. This study showed the research questions and research methods to examine whether Chinese learners different from Korean learners while using 'na' and 'uri' usage.

Secondly, Korean and Chinese pronoun system are proposed. The meaning and usage of 'na' and 'uri' were examined through Korean dictionary and previous research.

Thirdly, to investigate the actual expression patterns of Chinese learners, questionnaires were made. The questionnaires were made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and Chinese learners.

Finally, the actual expression patterns of Korean learners were proposed at first. After that I analyze this issue by multiple-choice test and YES/NO questionnaire. It can be seen that the Chinese learners have a particular

difficulty in using 'uri' rather than 'na'.

So, As a result of reviewing and analyzing so far, we summarized the contents of 'na' and 'uri', also showed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 I hope this paper will helpful for Chinese Learners of the Korean Language.



I. 서론

1.1. 연구의 목적

인칭 대명사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가지며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어는 알타이어계에 속하고 중국어는 한장어계(漢藏語系)에 속한다. 두 언어는 속한 어계가 다르지만 한국어와 중국어의 인칭대명사 모두 1인칭, 2인칭, 3인칭, 재귀대명사, 의문대명사, 부정대명사의 부류를 지니고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인칭 대명사의 차이로 인해 학습자가 의사소통하는데 오해가 발생하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 이한규(2007)는 “언어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자신의 언어에 투영시키기 때문에 한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 사용자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중 인칭 대명사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각기 특이성도 다르고, 인칭 대명사의 선택과 사용에서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관계나 가족제도가 복잡하고 집단주의¹⁾가 강한 한국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올바른 인칭 대명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사회문화적²⁾ 배경에서 한국어 1인칭 대명사의 화용론

-
- 1) 이한규(2005), 한국적 집단주의 문화에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려는 한국인들의 극단적인 성향으로 인해 내집단을 나타내는 대표적 표현으로서 ‘우리’가 발달했고, 내집단의 대립개념인 외집단을 나타내는 대표적 표현으로서 ‘남’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2) 이한규(2007),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한국적 집단주의가 ‘우리’의 쓰임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적 용법을 잘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화용론적 측면에서 한국어의 1인칭 대명사 ‘나, 우리’와 중국어의 1인칭 대명사 ‘我, 咱, 我們, 咱們’의 대조분석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1인칭 대명사 ‘나, 우리’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중국어에서는 인칭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지만 한국어처럼 제약이 많지 않다. 한국어 인칭 대명사는 청자와 화자의 계급, 관계, 친밀도, 태도, 상황 등과 같은 요소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중국인 학습자가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할 때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상황에 맞는 정확한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1.2. 선행 연구 고찰 및 필요성

국어학적 관점에서 인칭대명사의 관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 한국 학자들이 관한 연구는 인칭대명사를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누어 의미, 화용, 사회문화 측면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있고, 외국인 학자들이 주로 대조 연구로 발전하여 현재 까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나, 우리’를 중심으로 연구 진행되어 ‘나, 우리’에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한국어 인칭대명사‘나, 우리’에 관한 논문 연구

한국어 대명사 체계에 대해서 학자들이 화용론적, 언어학과 교육학적, 사회문화적 등에 견해를 가지고 있다.

화용론적 관점에서 ‘나’와 ‘우리’ 다룬 연구들은 강사회(1979), 朴宣東(1983), 김광희 (1992), 최인지(2012)등 연구가 있다.

강사회(1979)에서는 인칭대명사 화맥 속에서의 기능에 따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주어로서의 용법 먼저 살펴본 다음에 ‘우리’의 관형적 용법에 대해 살피고 있다. 관용적인(idiomatic) 성격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 집’, ‘우리 형’과 같은 표현이 사용할 때 하나의 관용구로 생각된다고 기술하였다.

朴宣東(1983)은 화용론의 관점에서“우리’는 발화 맥락에 따라 화자+청자, 화자+(대화에 존재하는, 발화되지 않은)제3자, 화자+(미리 전술 언급된)제3자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마누라’의 예시에서, ‘집’과 ‘학교’가 ‘어떤 공통성의 집단적인 성격’으로 보았고, ‘우리 마누라’는 ‘우리 집’과는 다른 의미의 표현이며 한국어 에서 굳어져 쓰이는 관용구라고 주장하였다. ‘어떤 공통성의 집단적인 성격’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모호한데, ‘집’과 ‘학교’가 집단이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추측된다. ‘마누라’는 공유할 수 없는 대상이므로 이 명사에 결합하는 ‘우리’는 복수형태지만 실제로 단수로 쓰이는 관용구이며, 강사회(1979)의 주장과 동일하게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관용적인(idiomatic)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광희(1992)에서는 인칭대명사를 화용론적인 입장에서 담화 상황을 고려해야 연구하였다. 1인칭대명사의 ‘나’가 어떤 인칭의 대명사와 조응하는지,

인식자의 주관성을 따라서는 어떤 대명사로 교체가 가능한 지 등의 대명사 변용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우리’는 그 복수 구성요소에 따라서 포괄적 의미의 ‘우리’와 배타적 의미의 ‘우리’가 존재한다.”

최인지(2012)에서는 화용론적 측면에서 윤재학(2003)과 이한규(2007)의 연구를 관련성의 이론적 관점에서 설명하여 ‘우리’와 영어 ‘we’의 의미를 “다른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필요는 없으며 관련성 이론의 절차적 의미를 통해 통합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연구하였다. 일인칭 복수 대명사가 화자를 포함한 집단을 의미한다고 정의 내린다면 화자 지칭 기능 없이 ‘we’가 쓰였거나 ‘우리’에 속한 사람이 화자 외에 누구인지 불확실한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대명사들이 갖고 있는 절차적 의미와 주어진 맥락과 사회·문화적 지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화자가 의도하는 집단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혜령 (2016)에서는 “1인칭 대명사의 의미와 의미 실현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인칭 대명사인 ‘나’, ‘저’, ‘우리’, ‘저희’를 대상으로 하여, 의미 실현 조건을 살피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1인칭 대명사인 ‘나’, ‘저’, ‘우리’, ‘저희’는 모두 공통 특성과 공통 실현 조건을 갖고 있었다. ‘나’와 ‘저’, ‘우리’와 ‘저희’, ‘나’와 ‘우리’, ‘저’와 ‘저희’를 함께 살폈을 때 각각을 단독으로 다룰 때보다 이들의 의미와 의미 실현 조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언어학과 교육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김정남(2003), 최동주(2009), 이서영(2017)등 있다.

김정남(2003)에서는 한국어 대명사 ‘우리’의 의미와 사용한 용법을 밝힘으로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와 학습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낮춤의 의미가 없는 1인칭 복수 대명사이지만 경우에 따라 ‘내’와 수의적으로 교체하여 단수를 지시할 수 도 있음을 보았고[낮춤]의 의미 유

무 및 청자 포함 여부에 따라 ‘저희’와 대립하기도 함을 보았다.

최동주(2009)에서는 ‘한국적 집단주의’와 같은 언어 외적 개념에 의지하고 있는 앞의 연구들과 달리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이 현상을 설명하였다. ‘단수적 상황’에 쓰이는 ‘우리’, ‘저희’, ‘너희’의 용법 중 ‘우리 남편’과 같은 예의 ‘우리’만 단수적 용법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우리’는 복수적 용법으로 간주하거나 관형사로 어휘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을 밝혔다.

이서영(2017)에서는 “한국어의 1인칭 대명사 중 후행명사를 한정하는 관형어로서의 기능을 하는 ‘우리’의 사용 맥락이 불규칙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와 ‘내’에 대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용법과 외국인의 용법에 차이가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연구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학적 관점에서의 고찰하였다.”

사회문화적 측면은 다른 형태 보다 많이 이루어지기 않고, 현재 까지 연구는 황병순(1982), 윤재학(2003), 이한규(2007)등 연구가 있다.

황병순(1982)에서는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우리’와 ‘내’의 차이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윤재학(2003)에서는 ‘우리’는 ‘내’에 대해 복수형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다. 이보다는 “‘우리’는 화자와 이 관형어의 제한을 받는 명사의 지시물이 특정한 내집단(內集團, in-group)과의 관련성을 표시하는 어휘라는 주장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용법을 주제어/주어로서의 용법과 관형어로서의 용법으로 분류하고, 다시 관형어를 내집단 개념과 서열 관계로 분류하였는데, 내집단 개념을 주제어/주어로서의 용법 우리+고유명사, 우리+장소(보통명사), 우리+단체로 분류하였고, “제시한 단체의 구성 요건에 대해 공동 소유일 경우 ‘우리’, 독점 소유일 경우 ‘내’, 양쪽 다 가능할 경우에는 ‘우리’와 ‘내’가 모두 쓰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우리’가 외집단 청자에

게 쓰일 때는 배타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실시한 ‘우리’와‘내’의 사용 선호도를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남성과 고령자일수록 ‘우리’의 사용빈도가 높으며, 단수적 용법의 ‘우리’의 사용이 점차 감소되고 ‘내’로 교체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한규(2007)에서는 “일인칭 대명사 ‘우리’를 사회문화적 관점과 화용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한국적 집단주의가 ‘우리’의 쓰임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국적 집단주의 문화에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려는 한국인들의 극단적인 성향으로 인해 내집단을 나타내는 대표적 표현으로서 ‘우리’가 발달했고, 내집단의 대립개념인 외집단을 나타내는 대표적 표현으로서‘남’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내집단 표현이라는 기본적인 사회문화적 개념을 통해 사용 구분의 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발화 맥락을 고려한 화용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다.”

나. 중국어 1인칭대명사 관한 연구

중국에서도 인칭대명사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되었다. 1인칭대명사의 관한 연구는黎錦熙(1924), 張春泉(2005), 王力(2011) 등이 있다.

黎錦熙(1924)는 중국에서 최초로 인칭대명사를 연구 하였다. “중국어 인칭대명사를 자칭, 대칭, 타칭으로 나누었고. 그중에 타칭을 남성, 여성, 중성으로 또 나누었다.”

張春泉(2005)은 “1인칭 대명사의 허지(虛指)용법은 발화상황과 밀접히 관계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원인의 제약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상세히‘我(們)’과 ‘我’의 허지(虛指)용법과 이에 대한 심리적 동인(動

因)을 설명하였다.”

王力(2011)에서는 “인칭대명사는 사람의 명칭을 대신 부르는 말이라고 하고, 인칭대명사는 사람을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1인칭대명사 ‘我’와 2인칭대명사 ‘你’는 한 분류에 속하고, 3인칭대명사 ‘他’는 다 분류에 속하는 것으로 3인칭을 사용할 때 이 3인칭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가 문맥 앞에서 먼저 나타나야 된다고 하였다.”

다. 중국인 학습자의 1인칭대명사의 대조분석 연구

중국어와 인칭대명사 대조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왕금화(2007), 등염추(2012), 심성호(2011), 오봉염(2012), 장관(2012), 우유(2014), 장찬(2014), 손설봉(2016), 주시예(2017) 등이 있다.

왕금화(2007)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인칭대명사에 대하여 대조 분석하였는데 먼저 인칭대명사를 분류시키고 두 언어의 1인칭대명사, 2인칭대명사, 3인칭대명사, 재귀대명사의 특징에 대한 분석, 특히 두 언어에 나타나는 인칭대명사의 정의, 특징, 공통점, 차이점을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시의 대상이 수적으로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색채가 가지는 효과를 고려하여 “나, 저”대신으로 “우리”를 쓰는 일이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이런 복수의 특수 용법이 없다. 한국어 1인칭대명사는 구어체에서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 생략되기도 하는데 중국어 1인칭대명사도 이렇게 생략될 경우가 많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심성호(2011)에서는 “한·중 인칭대명사 가운데 서로 연결되는 쌍들을 가려내어 그들의 대응관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는 양국 1, 2인칭대명사를 대응시킬 때 신중을 요한다고 하였다. 한국어는 나이, 신분, 계층, 상황에

따라 인칭대명사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반면, 중국어는 ‘我們’과 ‘咱們’, ‘你’와 ‘您’의 구분 외는 나이, 신분, 계층에 따른 사용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등염추(2012)에서는 “한국어의 인칭대명사와 중국어의 인칭대명사를 연구 대상으로 두 언어에서 나타난 인칭대명사의 체계와 특성을 비교·대조하였다. 1인칭대명사에 있어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어에는 겸사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친구나 아랫사람 혹은 윗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을 가리킬 때 똑같은 형태 ‘我’를 사용한다. 그리고 복수 형태인 한국어의 ‘우리’와 중국어의 ‘我們’은 청자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쓰임이 비슷하나 중국어에서 1인칭대명사의 복수 형태는 청자를 포함한 형태 ‘咱們’은 따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장관(2012)에서는 “초·중급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인칭대명사의 교육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한국어 빈도수가 높은 인칭대명사와 중국어 인칭대명사의 용법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오류 양상 및 오류 원인을 분석하였다. 한국어에서 복수를 나타내는 1인칭 대명사 ‘우리’는 언제나 수적 개념에 엄밀히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내’대신 ‘우리’를 써도 되는 경우도 있다. 중국어 ‘我們’에는 이런 용법이 없으므로 교수할 때 모국어 영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하고 나서 연습을 충분히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봉염(2012)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1인칭 대명사의 의미와 특징을 충분히 분석하고 설명하였다. 지칭대상과 사용영역으로 들어가서 한국어와 중국어 1인칭 대명사의 활용을 전체적으로 대비 분석하였다. 인칭대명사의 특징을 근거로 1인칭 대명사를 인칭 지시, 數, 공손성 그리고 담화성 크게

네 가지로 나누다.”고 제시하였다.

우유(2014)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인칭 대명사를 1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로 분류하고 두 언어에서 나타난 인칭 대명사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국어 1인칭 대명사와 중국어 1인칭 대명사는 단수 형태와 복수 형태로 분류하였고 중국어 1인칭 대명사의 복수 형태는 대응 1인칭 대명사 단수 형태 뒤에 ‘們’을 붙이면 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1인칭 대명사 단수 ‘나’나 ‘저’의 복수 형태는 뒤에 복수 표지 ‘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단어 ‘우리’나 ‘저희’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복수 형태의 ‘우리’나 ‘저희’는 뒤에 복수 표지 ‘들’도 붙일 수 있는 특별한 형태가 있다.”고 하였다.

장찬(2014)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1,2,3인칭대명사를 연구 대상으로 두 언어에서 나타나는 1,2,3인칭대명사의 체계와 어휘적 특징을 설명하고 한·중 1,2,3인칭대명사의 화용론적 용법을 비교하였다.”

손설봉(2016)에서는 “1인칭대명사를 대조한 결과는 두 언어 1인칭대명사가 모두 단수 표현과 복수 표현이 따로 존재한다. 한국어 단수 표현으로 ‘나, 저’가 있고 복수 표현으로 ‘우리, 저희’가 있으며 중국어 단수 표현으로 ‘我’가 있고 복수 표현으로 ‘我們, 咱們’이 있다. 또한 1인칭대명사 대신에 호칭어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두 언어가 공통점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어 1인칭대명사는 ‘내가, 제가’와 같은 형태적인 변화가 있는데 중국어에서는 형태적인 변화가 없다. 또한 한국어 1인칭대명사는 평칭·결양칭의 구분이 있는 것에서 중국어와 차이를 보이고 한국어 ‘우리’의 배타적·포괄적인 의미, ‘우리 남편’과 같은 ‘우리’의 특수 용법 등도 중국어 ‘我們, 咱們’과 매우 다르다.”고 제시하였다.

주시예(2017)에서는 “영화를 자료로 하여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 시 인칭 대명사의 변화와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 시 인칭 대명사의 변화에 대

한 대조 연구를 통해서 중국어의 인칭 대명사와 한국어의 인칭 대명사에 대한 사용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상연구들 보면 왕금화(2007), 등염추(2012), 우유(2014)는 한·중 1인칭대명사의 대조를 통하여 인칭대명사의 체계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시예(2017)는 번역을 통하여 인칭대명사의 출현양상이 관찰하였다. 오염봉(2012)에서는 1인칭대명사의 특징을 4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장관(2012)와 손설봉(2016)에서는 1인칭대명사 문제를 매우 적게 조사하여 오류 양상과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여기서 ‘나’의 관한 문제는 총3개를 제시하였고, ‘우리’ 관한 문제는 2개만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보면 아직 중국인 학습자 인칭대명사 ‘나’와 ‘우리’ 실제로 어떻게 사용 하고 있는지, 오류 어떻게 발생 하는지에 관한 실제 습득 및 사용 양상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았다.

1.3. 연구 방법

선행 연구를 통해 ‘나’와 ‘우리’를 연구의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사용 오류를 보이는 ‘나’와 ‘우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나’와 ‘우리’의 화용론과 사회문화적 특징을 알아보고 그와 대응하는 중국어 ‘我, 咱’와 ‘我們, 咱們’ 비교한 후 중국인 학습자들이 실제 습득 및 사용 양상을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1인칭대명사 ‘나’와 ‘우리’의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인칭 대명

사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연구 질문 2. 중국인 학습자는 ‘나’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교했을 때 어떤 오류를 발생 할 수 있을까?

중국인 학습자가 ‘나’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질문1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나’와 ‘우리’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오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질문 1을 해결하기 위해 ‘나’와 ‘우리’의 화용론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제 대응하는 중국어 인칭대명사를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겠다.

연구 질문2에서는 실제 중국인 학습자의 ‘나’와 ‘우리’의 사용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와 ‘우리’의 사용 양상에 어떤 오류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1인칭대명사 ‘나’와 ‘우리’의 화용론 및 사회문화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 ‘우리’와 ‘我, 咱’, ‘我們, 咱們’에 살펴본 후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해 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나’와 ‘우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살펴본 후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나’와 ‘우리’의 실제 사용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나’와 ‘우리’의 실제 사용 양상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무슨 오류를 발생하는지 오류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의 숙달도 따라 사용 양상의 차이점을 있는지에 대한 분석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나’와 ‘우리’의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한·중 인칭대명사 체계

가. 한국어 인칭대명사 체계

고영근·구본관(2010), “인칭 대명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인대명사’, ‘사람대이름씨’로 불리기도 한다.”

최형용(2016), “대명사는 명사와 수사가 가지지 않는 속성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한국어의 경우 명사나 수사가 인칭(人稱)과 별다른 관련을 가지지 않는 데 비해 대명사만 인칭과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대명사 가운데 이처럼 가리키는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人稱代名詞)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칭 대명사들이 높임의 정도에 따라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도 한국어 대명사의 주요한 특징이다.”

이익섭(2005), “한국어의 대명사는 경어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즉 어느 인칭의 대명사라도 경어법에 따라 형태가 나뉘어 있다.”

<표1> 이익섭³⁾의 한국어 인칭 대명사 체계

| 1인칭 대명사 | 단수 | | 복수 |
|---------|-----|---|----|
| | 평 칭 | 나 | 우리 |

3) 이익섭(2005),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 | | | | |
|---------|-------|------------------|----------------------|------------------|
| | | 겸양칭 | 저 | 저희 |
| 2인칭 대명사 | | 단수 | | 복수 |
| | | 평 칭 | 너 | 너희 |
| | | 경 칭 | 자네, 당신, 그대, 닥, 귀하 | |
| 3인칭 대명사 | | 근칭 | 중칭 | 원칭 |
| | 사물대명사 | 이것 | 그것 | 저것 |
| | 처소대명사 | 여기 | 거기 | 저기 |
| | 시간대명사 | 이때 | 그때 | 접때 |
| | 인물대명사 | 애, 이이, 이분, 이놈 | 개, 그이, 그분, 그놈 | 재, 저이, 저분, 저놈 |
| | 대용대명사 | 이 | 그 | 저 |

1인칭 대명사는 화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하는 예시 말고도 ‘짐(朕)’, ‘소생(小生)’등도 1인칭 대명사이나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다.

2인칭 대명사는 청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익섭(2005), “한국어의 2인칭 대명사는 1인칭 대명사보다 복잡하고 그 용법도 꽤 까다롭다, ‘너’와 ‘너희’는 그대로 ‘나’와 ‘우리’의 짝이 되어 간명하나 그 나머지는 짝이 지어지지 않는다. 2인칭 대명사에는 겸양칭이 없고 경칭(敬稱)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만이 아니어서 그 어느 것도 ‘저’의 짝은 아닌 것이다. ‘그대’는 고풍스러움을 드러내는 시어(詩語)로서 일반 대화에는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역시 상대가 상위자일 때에는 쓰지 않는다. ‘댁’⁴⁾(宅)의 쓰임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귀하’(貴下)는 2인칭대명사의 경칭 중 가장 등급이 높은

4) “‘댁’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만 쓸 뿐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것이 그 하나다. 그리고 좀 고풍스러운 느낌을 풍겨 젊은이 층에는 잘 안 어울린다는 제약도 있다. 그러나 ‘댁’은 상위자에게 쓰지 못한다는 제약은 없다.”

경칭이다. 그러나 ‘귀하’는 편지 등에서나 쓰이는, 그 쓰임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대명사다.” 최형용(2016), “낮춤의 ‘너, 너희’에 대해 ‘자네’는 하계체로 보다 대우해 주는 느낌이 있다. ‘그대’는 주로 문어체에 쓰이면 상대방을 친근하게 이르는 느낌을 주지만 구어체에도 쓰여 하계체나 하오체에 쓰인다. ‘당신’은 부부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2인칭 대명사이지만 맞서 싸울 때는 ‘당신이 뭘데 참견이야?’처럼 상대방을 낮잡아 이르는 경우에도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높임의 등급이 일률적이지 않다.”

3인칭 대명사는 화자와 청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화자와 청자를 기점으로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 근칭(近稱), 중칭(中稱), 원칭(遠稱)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익섭(2005), “3인칭 대명사는 사물대명사(事物代名詞), 처소대명사(處所代名詞), 시간대명사(時間代名詞), 인물대명사(人物代名詞)로도 나눈다. ‘이것’, ‘그것’, ‘저것’처럼 사물을 가리키는 것과 ‘여기’, ‘거기’, ‘저기’처럼 처소를 가리키는 것, ‘이때’, ‘그때’, ‘jem때’처럼 시간을 가리키는 것, 그리고 ‘이분’, ‘그분’, ‘저분’처럼 사람을 가리키는 것의 구분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인물대명사에는 다시 평칭(平稱)과 경칭(敬稱), 극경칭(極敬稱)의 구분이 있다. 즉 평칭의 ‘애’, ‘개’, ‘재’, 중칭의 ‘아이’, ‘그이’, ‘저이’, 극경칭의 ‘이분’, ‘그분’, ‘저분’, 비칭(卑稱)의 ‘이놈’, ‘그놈’, ‘저놈’이 있다.” 고영근·구본관(2010), “ ‘이, 그, 저’와 명사가 결합된 합성어가 대부분인데 합성어를 이루는 명사에 따라 예사말과 공대말이 구별되어 쓰인다. 곧 예사말인 ‘이이, 이애; 그. 그이, 그애; 저이, 저애’에 대해 공대말인 ‘이분; 그분; 저분’이 구별되어 쓰이고 있다.”

나. 중국어 인칭대명사 체계

강식진·이수진(2010), “중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代名詞’라 하지 않고 ‘代
替詞’ ‘代詞’라고 하는데, 이를 ‘대명사’라고 하여도 특별한 모순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대명사’라고 번역한다. 대명사는 그 의
미와 기능에 따라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의문대명사로 나눌 수 있다.”
중국어 인칭 대명사의 체계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중국어 인칭 대명사 체계

| | 單數(단수) | | 複數(복수) |
|------------------|--------------------------|--------|---------------------------|
| 第一人称 (제1인칭) | 我[wǒ] | | 我們[wǒ men] 咱們[zán men] |
| 第二人称 (제2인칭) | 普通式(예사말) | 你[nǐ] | 你們[nǐ men] |
| | 禮貌式(공대말) | 您[nín] | |
| 第三人称 (제3인칭) | 單數(단수) | | 複數(복수) |
| | 他[tā] | | 他們[tā men] |
| | 她[tā] | | 她們[tā men] |
| | | 它[tā] | 它們[tā men] |
| 復指代詞 (재귀 대명사) | 自己[zì jǐ], 自个儿[zì gè ér] | | |
| 기타 | | | |

| | |
|--|--|
| | 人家[rén jiā], 別人[bié rén], 大家[dà jiā], 某人[mǒu rén] |
|--|--|

중국어에서는 1인칭이나 3인칭대명사가 청자에 따라 예사말과 공대말로 잘 구분되지 않고 2인칭 대명사에만 공대말 구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1인칭 단수 대명사‘我’는 있다. 고대한어에 보이는 제1인칭 대명사는 ‘我’를 비롯하여 ‘吾’, ‘余’, ‘予’ 등이 있지만 이러한 여러 개의 인칭 대명사 중에서 현재까지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我’ 뿐이고 다른 인칭대명사는 구어체에서 사용되지 않고 시나 문어체에서 볼 수 있다. 복수 형태는‘-們’을 붙이고 사용한다.

제2인칭 단수 대명사는 듣는 사람을 가리킨다. ‘你’의 공대말 ‘您’이다. ‘您’은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 인칭 대명사에서 유일하게 문자로 표시된 존칭이라는 점을 볼 수 있다. 복수 형태는‘-們’을 붙이고 사용한다.

제3인칭 대명사는 ‘他, 她, 它’는 있다. ‘他’는 남성을 대표하고 ‘她’는 여성을 표시하는 것이고, ‘它’는 사물, 동물, 식물을 표시한다. 그리고 ‘他, 她, 它’는 모두 [tā]으로 발음하여 구어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문어체에서 구분할 수 있다. 복수 표현할 경우에는 남자들은 모두‘他們’을 표현하여 여자들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모두 ‘她們’을 사용하고, 사물, 동물, 식물을 복수 형태는 모두‘它們’을 사용한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함께 가리킬 경우에는 ‘他們’을 사용한다.

재귀 대명사는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고, 다른 인칭 대명사나 명사와 함께 쓰여 그 사람 자신, 그 사물 자체를 강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직접, 스스로, 저절로’라는 의미로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어가 될 수 있다.

본 절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인칭 대명사의 정의 및 분류를 제시하며, 두 언어의 인칭대명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보면, 한국어와 중국어의 인칭대명사는 모두 1, 2, 3인칭으로 분류하였고, 한국어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존재 관계에 따라 달리 높임 표현이 사용한다. 한국어 3인칭대명사는 고유한 형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지시관형사와 (의존)명사의 합성으로 형성된다. 이 바탕으로 다음절부터 한국어와 중국어의 1인칭 대명사의 용법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2. ‘나’와 ‘我, 咱’의 대비

한국어 1인칭 단수 대명사 ‘나’와 ‘저’가 있다. 한국어 경어법에 따라 ‘나’는 평칭이고, ‘저’는 겸양칭이 된다. 중국어 1인칭 단수 대명사는 ‘我, 咱’이 존재 하고 있지만 ‘我’는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고, ‘咱’은 주로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咱’은 북방방언에서 1인칭 단수 대명사를 볼 수 있고 담화 환경에 따라 화자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만 지역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에 ‘나’와 ‘我, 咱’의 의미와 용법을 살펴본 후 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나’의 용법

한국어 1인칭 단수 대명사 ‘나’는 사전에서 제시된 ‘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국어 대사전>에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어 일컫는 말. 조사 ‘가’가 붙을 때는 ‘내’로 됨.” 제시하였다.

둘째,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서 “말하는 이가 자기를 가리키는 말. 대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랫사람을 대하여, 조사‘가’가 올 때에는 ‘내’가 된다.” 제시하였다.

김정남(2003)에서는 “대우법에서 [-복수][-낮춤]형태에 ‘내’를 사용할 경우 [-친밀감]의 상황을 유발하여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를 쓰고 반대로 친근감을 나타내지 않고 소유 관계만을 강조할 때에는 ‘내’를 쓴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내’와 대립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아닌 ‘내’가 쓰인다. 그리고 ‘남편’은 ‘우리’의 수식도 받는 데 반해서 ‘남자친구’⁵⁾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자못 흥미롭다. ‘남자친구’의 경우 ‘우리’로 수식하면 ‘나만의’라는 단수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기에 화자가 그런 상황을 의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복수 의미를 배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우리’ 아닌 ‘내’를 쓰는 것이라고 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윤재학(2003)에서는 “단수적 용법 ‘우리’는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나라’ 에서도 나타난다. ‘우리 집’은 상황에 따라 ‘내 집’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나머지 ‘*내 아버지, *내 오빠, *내 학교, *내 나라’ 가 불가능 하거나 자연스럽지 못해 보인다.”고 주장 하였다.

김혜령(2016)에서는 “‘나’는 화자가 청자보다 높거나 동등한, 즉 낮지 않은 위치에 있을 때 사용 할 수 있는 표현이 된다. 자신을 ‘나’로 표현하는 화자는 분명히 청자를 높여주려 하거나 혹은 청자에 비해 자신을 높이려는

5) 김정남(2003)에서는 다음 명사들은 우리 자료에서 ‘내’의 수식만을 받고 ‘우리’의 수식은 받지 않는 예들이다.

(우리+*____, 내+____)

남자친구, 님, 신부, 아내, 여자, 외사촌, 장인, 짝꿍, 짝, 핏줄(이상 10항목)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의 경우에는 화자가 사이의 관계가, 화자가 청자에 비해 낮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또한 화자가 청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공손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 김혜령(2016) ‘나’의 의미 분석

| 의미 | 의미 실현 조건 | |
|--------------------|---------------------------|--------------|
| | 화맥: 참여자 | |
| | 관계 | 태도 |
| 발화하고 있는 자신을 나타내는 말 | 화자가 청자에 비해 낮지 않은 위치에 있을 때 | 공손함을 드러내지 않음 |

왕금화(2007)에서는 “1인칭대명사는 말하는 이나 글 쓴 이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형태는 ‘나’는 단수이고, 예사표현이다. 주격조사 ‘가’가 올 경우에 ‘나’는 ‘내’의 변이형태를 가진다. 그리고 구어체에서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 생략되기도 하는데 이는 1인칭대명사가 화자 자신이므로 대화하는 자리에서는 이해되기 쉽기 때문이다.”고 제시하였다.

심성호(2011)에서는 “ 한국어 ‘나’와 중국어‘我’는 모두 격변화가 없다. 한국어는 조사‘-가(는), -의, -를(을)’이 와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되고, 중국어는 어순즉 놓이는 위치에 따라 격이 결정된다. 그리고 중국어 ‘我’는 한국어의 예사말 ‘나’와 낮춤말 ‘저’를 모두 포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장관(2012)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나오는 예문을 인용해서 “‘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랫사람인 청자에 대하여 자기를 가리키는 1인칭대명사로서 주격조사가 붙으면 ‘내’로 변이된다. ‘나’는 대우 특질상의 무표성 때문에 종결어미 형태의 선택제약이 완화한다. ‘나’대신 호칭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화자가 부모라든지 선생님, 기타 친분 관계가 있는 어른

일 경우이며, 청자는 어린 아이라든가 어린 학생일 경우에 쓴다. 이때 대화하는 두 사람이 서로 가까이 연결되는 느낌을 준다.”고 제시하였다.

오봉염(2012)에서는 단수 인칭대명사 ‘나’의 용법을 ‘인칭 지시, 공손성, 담화 성’으로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인칭 지시에 경우에는 “‘나’는 화자 자칭으로 쓰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지칭형식이 지칭대상과 달라, 분명한 개인의 주관을 가지고 다양한 감정색채를 드러내어 화용적 효과를 높이는 경우도 있다.” 공손 성 경우에는 “‘나’는 일반적으로 화자의 지위가 청자보다 높거나 청자와 같은 동년배일 때 큰 제약 없이 사용한다. 그러나 한국어 가족에서 아랫사람이 ‘나’를 사용하는 경우도 매우 보편적이다.” 담화 성에 경우에는 “언어 환경에 따라 구체적인 지칭이 사라지고 어떠한 실체를 지칭할 수도 있고, 혹은 지칭기능이 모두 사라지고 담화 표지로만 사용되어 의미가 변화하고 화자가 의도한 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담화 상에서 ‘나’는 생략현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칭대명사의 특징 중의 하나인 數의 변화를 나타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한다.

첫째, 화자 지칭한 경우, 대응한 관계에 있는 사람, 아랫사람, 가족관계, 청자와 친할 때, 모두 ‘나’를 사용해서 화자 지칭한다.

둘째, ‘나’의 뒤에 조사‘가’가 오는 경우에는 ‘내’가 되는 형태 변화가 있다.

셋째, 청자와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 청자가 화자보다 직위나 연령이 낮은 경우에 ‘나’대신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넷째, ‘나’의 뒤에서 [명사류(가족관계)] 사용한 경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나. ‘我, 咱’의 용법

중국어 1인칭 단수 대명사는 ‘我’는 사전에서 제시된 ‘我’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현대 중한사전>에서 제시된 첫 번째 의미는 ‘나, 저’;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셋 번째 의미는 ‘(‘你’·‘我’와 함께 쓰여 ‘나’와‘너’가 아닌 불특정 단수의)여러 사람(많은 사람)을 가리킴’; 넷 번째 의미는 ‘자기, 자신’ 이러한 네까지 의미를 제시하였다.

중국어 1인칭 단수 대명사는 ‘咱’은 사전에서 제시된 ‘咱’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현대 중한사전>에서 제시된 첫 번째 의미는 ‘우리(들)’; 두 번째 의미는 ‘나, 저 (방언)’ 두 까지를 제시하였다.

한국어와 다르게 중국어의 1인칭대명사 단수 형태는 ‘我’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다. 담화 환경의 따라 문장에서 담당하는 역할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我’는 제약 없이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왕금화(2007)에서는 “‘我’는 말하는 자신을 대신한 1인칭이고, ‘我’가 총체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서 규정어로 될 때 복수를 나타낸다. ‘我’로 ‘我, 我們’을 대신하는데 사실 ‘我厂, 我校, 我軍’, ‘我們工厂, 我們學校, 我們軍隊’의 뜻이다. 이런 단수로 복수를 대신하는 용법은 문어체에 잘 쓰이는데 특히 우편물, 공문, 뉴스 등에 많이 쓰인다.

‘咱’은 1인칭대명사의 단수형식으로 때로는 문장에서 화자의 자랑, 풍자의 말투를 나타낸다. 단수형식 ‘咱’은 방언 색채가 농후하며 주로 구두어에 쓰이는데 언어 환경에 따라 ‘我’를 대신할 수도 있고 ‘我們’을 대신할 수도 있으며, ‘咱們’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봉염(2012)에서는 “현대중국어에서 공식적으로 보면 1인칭 단수대명사는 ‘我’뿐이고 제약 없이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북방방언에서 ‘咱’도 1인칭 단수 대명사로 볼 수 있다고 하였지만 지역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다. 1인칭 대명사 ‘咱’은 전형적인 구어화 북방방언이며 환경에 따라 지칭대상도 다르다. ‘我’는 화자 자칭뿐만 아니

라 지칭이 실제 지칭대상에 배치될 때도 있으며 ‘我們’으로 이해될 수 있다. ‘咱’가 복수를 지칭 할 때는 친근감, 우호적 감정을 보이고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 ‘我’가 담화 표지로 사용될 때는 지칭의 의미가 없고 주로 구문에서 청자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중국어 1인칭 단수 대명사는 공손 표현이 없고 ‘我’로 지칭할 수 있다.”

장관(2012)에서는 “1인칭대명사 ‘我’ 대신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호칭이나 지칭이 쓰이는 경우가 있다. ‘咱’은 2인칭대명사 대신에 사용할 때 직접 2인칭대명사로 사용하는 경우 보다 훨씬 친밀감을 나타낸다. 화자는 단골 손님이나 어른이, 청자는 판매원이나 어린 아이인 경우에 많이 쓴다.”

우유(2014)에서는 “첫째, 중국어 1인칭 대명사의 ‘我’ 뒤에 단체를 나타내는 집단 명사가 붙을 때 1인칭 대명사 ‘我’는 복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한국어 1인칭 대명사의 복수 형태가 대응된다. 둘째, 중국어 1인칭 대명사의 ‘我’는 ‘你…我…’의 형식으로 사용하여 ‘서로’⁶⁾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제시하였다.

ZHANG YIYI(2016)에서는 “중국어는 고립어이므로 1인칭 대명사가 주어 위치에 있거나 목적어 위치에 있거나 모두 똑같은 형태로 실현된다. ‘我[wǒ]’는 한국어의 ‘나’처럼 구체적인 지칭 대상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불특정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허지(虛指)의 용법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선행연구 보듯이 ‘我, 咱’의 용법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수‘我, 咱’은 단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복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둘째, ‘我’는 제약 없이 화자 자신을 지칭 할 수 있다.

6)우유(2014)에서 예문: (11) a. 你來我往。(서로 왕래하다.)

b. 你問我, 我問你。(주거니 받거니 서로 질문한다.)

이상 예문(11)의 경우에는 중국어 1인칭 대명사의 ‘我’가 한국어 1인칭 대명사의 ‘나’나 ‘저’에 직접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我’의 대신 호칭어를 쓰일 수 있다.

넷째, ‘咱’은 2인칭 대명사 ‘너’를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다. ‘나’와 ‘我, 咱’의 대비

앞선 ‘가, 나’ 두 절에서 한국어 1인칭 단수 대명사 ‘나’와 중국어 1인칭 단수 대명사 ‘我, 咱’의 의미와 용법을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1인칭 단수 대명사의 용법을 예문을 통해서 대조하고 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a. (화자 지칭)

나는 부산에서 태어났다.

(話者 指稱)

我/咱在釜山出生.

b. (선생님이 학생에게)

지금까지 내가 한말 중에서 궁금한 게 있나요?

(老師對學生說)

到現在為止, 我說的話里有不懂的嗎?

c. (친구사이)

나랑 같이 밥 먹자.

(朋友之間)

跟我一起吃飯吧!

d. (부부사이)

여보, 나를 좀 도와줘.

(夫妻之間)

老公, 幫我一下吧.

예문(1)에서 보면 한국어 '나'는 화자 지칭 하는 경우, '我, 咱'을 대응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대응한 관계있는 사람이나 아랫사람인 경우, 직급과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사이 관계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부부와 친구사이인 경우 등 상황에서 '나'를 사용해서 화자가 지칭할 때 중국어 '我'로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어머님이 아이에게)

엄마(내)가 용돈 줄게.

(媽媽對孩子說)

媽媽(我)給你零花錢.

예문(2)에서는 호칭어 대신 지칭한 경우의 대응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화자가 청자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나'를 사용하지 않고 호칭어를 사용해서 '나'를 지칭하였다. 이런 경우에서 중국어 '我'를 똑같이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다. '咱'을 사용하지 않는다.

(3) 내가 할게.

我來做吧.

예문(3)에서는 '我'는 형태적으로 변화하지 않지만 한국어에서 '나'는 형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나'뒤에서 조사'가'가 올 때에는 자연스럽게 '내'가 되는 경우이다. 번역을 통해 보이는 것처럼 '我'는 형태를 변화

지 않다. 우유(2014)에서 “한국어는 교착어로서 주로 조사와 어미를 통해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반면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주로 어휘와 어순을 통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간단하게 말해 한국어는 주어 표지, 목적어 표지 등이 뚜렷한 데 비해 중국어에는 이런 표지가 없다. 문장에서는 단어의 위치를 통해 문장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4) (職員對老板說)

老板，我和你以前見過面。

(직원이 사장님에게)

사장님, 저는 사장님과 이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문(4)에서는 중국어에서는 모두 ‘我’로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어에서 평칭 ‘나’와 겸양칭 ‘저’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에서 ‘저’를 사용하고 ‘나’를 사용할 수 없지만 중국어에서 ‘我’를 사용하였다. 이에 보듯이 중국어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연령과 직위를 상관없이 모두 사용가능하지만 한국어 ‘나’를 모두 상황에서 대응할 수 없다. 한국어에서 화자가윗사람이나 그다지 가깝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경우는 ‘나’를 사용하지 않고 ‘저’를 사용한다.

(5) 我/咱校近年發展很快.

우리 학교는 최근 발전이 매우 빠르다.

예문(5)에서는 단수 ‘我’를 사용하지만 복수 의미 ‘우리’를 보인다. 여기서 ‘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번역할 때 복수 대명사 ‘우리’를 사용하였다.

또한 ‘咱’의 복수 ‘우리’ 의미를 사용하여 청자가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我’는 단수 대명사를 복수로 나타낼 수 있지만 한국에서 ‘나’는 복수로 나타낼 수 없다. ‘咱’는 방언에서 주로 쓰이고 단수 ‘我’를 대신 사용할 수도 있고 복수‘我們, 咱們’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6) 咱能不這樣嗎?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어?

예문(6)에서는 중국어에서 ‘咱’은 2인칭 대명사 ‘너’를 대신 사용하지만 한국어에서 ‘나’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咱’은 직접 2인칭대명사로 사용하는 경우 보다 훨씬 친밀감을 나타내는 반면에 ‘나’를 대응해서 사용할 수 없다.

앞에서 예문을 통해 ‘나’와 ‘我, 咱’의 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정리하여 ‘나’와 ‘我, 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음<표5>과 같다.

<표4> ‘나’와 ‘我, 咱’의 공통점과 차이점

| | | 나 | 我 | 咱 |
|---|-----------|---|---|---|
| 1 | 화자 지칭 | ○ | ○ | ○ |
| 2 | 호칭어 대신 지칭 | ○ | ○ | × |
| 3 | 존칭 제약 | ○ | × | × |
| 4 | 형태 변화 | ○ | × | × |
| 5 | 數의 사용 | × | ○ | ○ |
| 6 | 명사 | ○ | ○ | ○ |

* (○가능,×불가능)

<표4>를 통해‘나’와 ‘我, 咱’의 공통점을 다음 두 가지 특징을 통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자 지칭한 경우에는서는 대응한 관계있는 사람이나 아랫사람인 경

우, 직급과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사이 관계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부부와 친구사이인 경우 등 상황에서 ‘나’를 사용해서 화자가 지칭할 때 중국어‘我’로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다.

둘째, 호칭어 대신 지칭한 경우에는 화자가 청자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나’를 사용하지 않고 호칭어를 사용해서 ‘나’를 지칭하였다. 중국어에서도 친밀도를 표현하기 위해 ‘我’를 사용하지 않고 호칭어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와 대응해서 사용할 수 있다.

‘나’와 ‘我, 咱’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존칭 제약한 경우에는 중국어에서는 모두‘我’로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어에서 평칭‘나’와 겸양칭‘저’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어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연령과 직위를 상관없이 모두 사용가능하지만 한국어 ‘나’를 모두 상황에서 대응할 수 없다.

둘째, 형태 변화한 경우에는 ‘나’뒤에서 조사‘가’가 올 때에는 자연스럽게 ‘내’가 되지만 번역할 때 ‘我’는 형태를 변하지 않는다.

셋째, 數의 사용한 경우에는 중국어에서 ‘我’는 단수 대명사를 복수로 나타낼 수 있지만 한국에서 ‘나’는 복수로 나타낼 수 없다. ‘咱’는 방언에서 주로 쓰이고 단수‘我’를 대신 사용할 수도 있고 복수‘我們, 咱們’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넷째, 2인칭 지칭한 경우에는 중국어에서 ‘咱’은 2인칭 대명사 ‘너’를 대신 사용하지만 한국어에서 ‘나’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咱’은 직접 2인칭대명사로 사용하는 경우 보다 훨씬 친밀감을 나타내는 반면에 ‘나’를 대응해서 사용할 수 없다.

본 절에서 제시된 ‘나’와 ‘我, 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한국어 ‘나’의 용법을 ‘존칭 제약, 형태 변화’사용한 경우에서 중국어 용법에서 존재하지 않아서 오류를 많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다.

2.3. ‘우리’와 ‘我們, 咱們’의 대비

한국어 1인칭 복수 대명사는 ‘우리’와 ‘저희’가 있다. 한국어 경어법에 따라 ‘우리’는 평칭이고, ‘저희’는 겸양칭이 된다. 중국어 1인칭 복수 대명사는 ‘我, 咱’뒤에서 ‘們’을 붙이면 복수를 되고 ‘我們’은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고, ‘咱們’은 주로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咱們’은 북방방언에서 1인칭 복수 대명사를 볼 수 있지만 지역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에 ‘우리’와 ‘我們, 咱們’의 의미와 용법을 살펴본 후 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우리’의 용법

한국어 1인칭 복수 대명사는 ‘우리’ 사전에서 제시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국어 대사전>에서 “자기나 자기 무리를 대표(代表)하여 스스로 일컫는 말.”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서 “자기와 함께 자기와 관련되는 여러 사람을 다 같이 가리킬 때, 또는 자기나 자기편을 가리킬 때 쓰는 말. 일부 명사 앞에서 관형어로 쓰여, 말하는 이와 관련된 사람을 친근하게 가리키는 말.”

황병순(1996:100)에서 “한국어의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나뉜다고 언급하였다. 하나는 ‘말하는 사람을 포함한 집단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우리₁)이고, 다른 하나는 ‘말하는 사람을 포함한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가리키는 경우(우리₂)이다. ‘우리’가 단수를 가리키는 말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우리₂’를 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복수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₁’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 담긴 복수라는 의미는 ‘집단(무리)’이란 의미로 인해 부수적으로 생기는 의미일 뿐이다. 우리 말에 ‘수(數)의 일치’란 문법이 없는 것도 이와 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김정남(2003)은 “ ‘우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복수(複數)]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낮춤] 즉 [+비 낮춤]의 의미이다. 한국어에는 ‘수(數)’라는 문법 범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라는 것은 문장 내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담화 맥락을 고려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는 ‘우리’가 ‘높임/낮춤’이라는 기준으로는 ‘저희’와 대립하고 ‘단수/복수’라는 기준으로는 ‘나’와 대립함을 보았다. 그러나 1인칭 단수 낮춤의 대명사 ‘저’와 1인칭 복수 낮춤의 대명사 ‘저희’가 상대경어법으로 ‘높임’의 종결어미밖에 선택할 수 없는 데 반해서 ‘나’와 ‘우리’는 상대경어법으로 존칭과 비칭을 모두 선택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저희’는 ‘우리’와 달리 청자를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재학(2003)에서 “단수적 용법의 ‘우리’는 주제어의 경우와 관형어로 쓰이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결론으로서 관형어 ‘우리’는 ‘내’에 대한 복수형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다.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가 다룰 단수적 ‘우리’는 주제어로 사용되는 경우와 관형어의 사용 경우는 별개의 구문으로 간주하고, 상황에 따라 화용성 여부가 결정되는 단수적 ‘우리’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주제어로 사용되는 단수적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확인하고 관형어 ‘우리’는 ‘우리’+고유명사, ‘우리’+장소(보통명사), ‘우리’+단체, 단체의 구성 요건과 내집단vs. 외집단 등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이익섭(2005)에서는 “한국어의 ‘우리’는 이보다 더 독특한 용법도 가지고 있다. 다음(4)에서 보듯이 가족관계나 공동 소유 개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쓰는 용법이 그 것이다. 영어라면 ‘나의/내(my)’를 쓸 자리에 ‘우리

(our)'를 쓰는 것이다.

a. 우리 가족, 우리 아빠, 우리 언니, 우리 손자, 우리 고모, 우리 조카, 우리 집사람 (안사람), 우리 남편, 우리 큰댁, 우리 외가, 우리 처가, 우리 시댁, 우리 시댁 어른들

b. 우리 집, 우리 논, 우리 학교, 우리 반, 우리 화사, 우리 동네, 우리 고향, 우리 시골

이러한 용법이 '우리'는 비록 자기 한 개인에게만 관계되는 것일지라도 그 대로 적용된다. 가령 무남독녀라면 그에게 아빠라면 결코 '우리'의 아빠 일 수 없는데 이럴 때에도 '내 아빠'라고 하지 않는다. 단 두 오누이의 경우에도 '우리 오빠'일 뿐 '내 오빠'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규칙은 '우리 집사람', '우리 남편', 또는 '우리 마누라'에서 더 잘 드러나지만 '우리 처가'나 '우리 시댁'에서도 잘 드러난다. 또 노총각이 혼자 사는 자기 개인 소유의 집이라고 해서 '내 집이야'나 '내 집이 불이 나서 혼이 났어' 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공동 소유일 수 없는 경우에도 하나의 규칙으로서 '우리'가 쓰이는 것이다.⁷⁾

이한규(2007)에서 “우리주의(we-ism)’라고까지 불리는 한국적 집단주의를 반영하고 있는 표현 ‘우리’의 쓰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초석이 될 거라 여긴다. 한국어 일인칭 복수 대명사라고 알려진 ‘우리’는 다른 나라 언어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양하고 특이한 쓰임을 가지고 있다.

7) “부모의 차, 또는 가족 공동의 차를 ‘우리 차’라 하는 것과 구별하여 자기 개인 용 차를 ‘내 차’라 할 수 있듯이 ‘우리’와 ‘나의(내)’를 원 의미대로 구별해 쓰는 용법도 없지 않다. ‘내 집 마련’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자리에 ‘내’가 쓰이기도 한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한국적 집단주의 문화에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려는 한국인들의 극단적인 성향으로 인해 내집단을 나타내는 대표적 표현으로서 ‘우리’가 발달했다. 화용론적인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담화상황에서 내집단 개념이 구체적인 대화상황에서 화자의 목적에 따라 유대감, politeness, 친근감 등의 다양한 담화기능을 나타나기 위해 사용됨을 살펴 보았다.”

심성호(2011)에서는 “한국어 ‘우리’는 ‘칭자 포함하는 우리, 칭자 포함 하지 않는 우리, ‘우리’의 낮춤말‘저희’, 소유나 소속관계를 나타내는 우리’ 측면에서 검토하여, 언어는 사회·문화적 관계 속에서 생성되고 발전되는 것이므로 사회·문화적 요인이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한국사회에서는 항상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조화되는 개인이 될 것을 요구하는 사회 규범과 관습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규범과 관습이 언어 의식에도 영향을 미쳐 개인이 속한 단체를 표현할 때 ‘우리’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학교, 우리 집, 우리 엄마...’라는 말은 공동체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언어 인식에 부합하는 자연스런 표현이고, ‘내 나라, 내 학교, 내 집, 내 엄마...’라는 말은 언어 의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자연스런 표현이므로 중국인 학습자가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혜령(2016)에서는 “‘우리’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화자 개인과 연관되어 있어 ‘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도 ‘우리’로 표현하고 이를 칭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점은 화자의 태도만으로는 적절한 설명을 제시할 수 없다. 이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 특유의 공동체 문화가 작용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는 개인보다 공동체, 특히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가능한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용법의 ‘우리’가 반드시 단수나 복수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를 ‘내’와 바꾸어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특히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화자가 포함된 공동체적 의미에 기반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때의 ‘우리’가 ‘내’와 완전히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것은 수의 특성보다는 ‘우리’가 갖는 정서적 특성이 극대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정서적 특성인 동시에, 이러한 정서적 특성이 용인되는 문화적 특성으로 이어진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어공동체에, 이러한 정서적 특성이 언어의 관습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표5> 김혜령(2016) ‘우리’의 의미 분석

| 의미 | | 의미 실현 조건 | | | |
|----|------------------------------|---------------------|----------------------|-------------------|--------|
| | | 문맥 | 화맥 | | |
| | | 공기 관계: 선택 특성 | 참여자 | | |
| | | 관계 | 태도 | | |
| 01 | 화자와 청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나타내는 말. | | 화자가 청자보다 낮지 않은 위치일 때 | 청자 포함 | 공동체 문화 |
| 02 | 화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나타내는 말. | | | 청자 배제 | |
| 03 | ‘화자와 친근한 관계에 있는’의 뜻을 나타내는 말. | 명사구: 가까운 인물, 소유물 | 위치일 때 | 청자배제 감정적 거리 표현 | |

우유(2008)에서는 “한국어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사용 기능을 지닌다.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는 ‘나’와 ‘너’, 또는 ‘나’와 ‘너’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 사람이 말을 할 때 ‘나의 어머니’, ‘나의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 ‘우리 남편’으로 표현한다. 이런 특이한 언어 사용 양상에 대해서 서양권 사람들뿐만 아니라 같은 아시아

아 국가인 중국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함으로 자기중심이 아닌 모두를 중심으로 본 '우리'를 선호하게 된다. 교육할 때 이에 관한 문화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학습자들이 이 표현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 엄마, 우리 언니'라고 하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고 하면 아마 남편이나 아내까지 어떻게 남과 공유할 수 있는냐는 의문이 들 것이다. '우리'는 보통 친척 호칭어, 지칭어 앞에 아니면 자기가 소속 단체 앞에, 혹은 자기 나라를 말할 때 쓰이게 된다. 중국어에서 자기 소속이나 나라를 말할 때는 비슷한 용법이 보이지만 가족에 대해 말할 때는 절대로 안 쓴다."고 제시하였다.

위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우리'의 용법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는 '나'의 복수표현으로 사용해서 청자를 포함하여 화자와 청자를 동시에 지시하지만 단수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둘째, '우리'는 화자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청자 배제할 수도 있다.

셋째, '우리'와 명사 결합하여 감정 표현을 볼 수 있다. 화자 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권하는 표현과 친밀한 관계임을 표현하는 것이다.⁸⁾

8) 김정남 (2003) 일부 명사 모두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대표적이고 사용 빈도가 높은 예들을 많이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다음 (14)는 한국어 교육용 말뭉치에서 친밀감 표현의 '우리'의 피수식어로 나타나는 명사들의 목록이다.

(14) (우리+____, 내+____)

가족, 각시, 남편, 동생, 딸아이, 딸, 아기, 아들, 아버지, 아이, 어머니, 여동생, 오빠, 외할머니, 자식, 집, 친구(이상 17항목)

(14)에 제시된 예들은 복수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친밀감'을 드러내는 예들로 나타난 것 들이다. 주로 사람을 가리키는 유정 명사들이며 유정 물은 아니지만 '집', '차'처럼 사람과 밀접한 대상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 (16)은 현재의 자료 내에서 '우리'의 수식은 받으나 '내'의 수식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명사 들이다.

(16) (우리+____, 내+*____)

넷째, ‘우리’의 존칭 제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종결어미로 통해 공손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알 수 있다⁹⁾.

나. ‘我們, 咱們’의 용법

중국어 2인칭 복수 대명사 ‘我們, 咱們’의 사전에서 제시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현대 중한사전>에서 ‘我們’는 첫째, ‘우리(들)’; 둘째, ‘나, 저[주로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 쓰임]’; 셋째, ‘우리, 나[저](감정적인 색채를 땀)’; 넷째, ‘여러분, 너희[친근감을 나타냄]’의미를 제시하였다.

<현대 중한사전>에서 ‘咱們’은 첫째, ‘우리(들)[자기 쪽‘我’, ‘我們’과 상대방 ‘你’, ‘你們’을 모두 포함함]’; 둘째, ‘나 또는 너’ 의미를 제시하였다.

‘我, 咱’ 뒤에서 ‘們’을 붙이면 복수 대명사 ‘我們, 咱們’을 된다. 상대방의 연령이나 지위에 따라 한국어의 ‘우리’와 ‘저희’로 나누지만 중국어로 연령과 지위 구분 상관없이 ‘我們, 咱們’로 사용한다.

왕금화(2007)에서는 “사람이 겸손태도로 자기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을 때 ‘我們’으로 ‘我’를 쓸 수 있다. 어떤 때,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말하는 화자는 자기를 듣는 청자의 쪽에 놓는데 ‘我們’으로 ‘你們’을

강아지, 공주님, 꼬마, 꼬맹이, 누나, 며느리, 부모님, 손자, 아가, 아빠, 아줌마, 어린이, 어머니, 언니, 엄마, 차, 청소년, 할머니, 할아버지(이상 19항목), 기타 인명, 지명.

9) 오봉염(2012):

(83)b.오늘부터 우리하고 함께 근무하게 된 민정 씨입니다.

종결어미 ‘-습니다’가 쓰였지만 이런 용법은 주체의 청자에 대한 존경을 표현할 뿐이고 화자의 지위가 꼭 청자보다 낮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화자가 ‘우리’로 지칭해서 화자를 포함한 집단의 지위를 나타내 준다. 이로부터 ‘우리’는 화자를 포함한 집단을 지칭하는 동시에 청자와의 지위관계도 나타낼 수 있다. 즉 화자는 청자보다 높거나 청자와 동년배 관계인 것이다.

대신한다. ‘咱們’은 화자와 청자를 함께 나타내고 ‘我們’은 화자들만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청자까지 함께 나타낼 수도 있다. 따라서 ‘咱們’과 ‘我們’은 서로 바뀔 때가 있지만 바뀔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정론문이나 장엄한 색채를 띤 호소문에서, 말을 듣는 화자들을 망라하여도 ‘咱們’을 쓰지 않고 ‘我們’을 쓴다.”

등염추(2012)에서는 “‘我們’은 1인칭대명사의 복수형이지만 단수로 사용할 수도 있다. 1인칭대명사 복수로 쓰이는 ‘我們’은 듣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 말하는 사람만의 ‘우리’를 가리키는 경우이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여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我們, 咱們’은 모두 1인칭대명사의 복수형이지만 실제 사용상에서 차이가 있다. ‘我們’은 말하는 사람만을 가리키거나 혹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를 가리키며, ‘咱們’은 보통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를 포함한다.”

오봉염(2012)에서는 “중국어 1인칭 대명사에서 자신을 지칭하는 복수형식으로는 ‘我們’을 사용하기도 하고 북방방언에서는 ‘咱們’(혹은 ‘咱’)을 사용하기도 한다. 《漢語大詞典》(2008)에서 ‘我們’의 기본의미는 ‘말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하였고, ‘咱們’의 포함대상은 ‘我’ 혹은 ‘我們’과 상대방 ‘你’ 혹은 ‘你們’이라고 하였다. 朱德熙(1982)는 ‘咱們’은 반드시 청자(‘你’혹은‘你們’)가 포함되고 ‘我們’은 청자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즉, ‘咱們’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식이고 ‘我們’을 사용할 경우에는 배제식일 수도 있고 포함식일 수도 있다. ‘我們/咱們’의 數와 인칭의 공통변화는 화자의 관점의 변화와 감정, 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

ZHANG YIYI(2016)에서는 “‘我們[wǒ men]’은 1인칭 대명사의 복수 형태이지만 때로는 1인칭 단수 대명사 ‘我[wǒ]’와 2인칭 단수 대명사 ‘你[nǐ]’ 대신에 나타날 수 있다. 1인칭 대명사와 명사의 결합 순서에 따라 복지(復指)

용법의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1인칭 대명사가 명사에 선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인칭 대명사가 명사에 후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1인칭 대명사가 명사에 선행하는 경우가 더 많고 명사가 생략되어도 문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복지(復指) 용법은 1인칭 대명사가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비해 의미상의 차이가 없는데 다만 강조(強調)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위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我們, 咱們’의 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수‘我們’은 단수‘我’를 나타낼 때도 있지만 ‘咱們’은 단수로 표현할 수 없다.

둘째, ‘我們, 咱們’은 화자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을 가리키고 ‘我們’은 청자와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를 가지고 있고, 화자와 제3자를 지칭해서 청자 ‘你’를 배제하고 대립 관계도 된다. ‘咱們’은 청자 배제 할 수 없다.

셋째, ‘我們, 咱們’은 감정 표현을 볼 수 있다. 화자의 권하는 의도, 화자의 태도를 표현한다.

넷째, ‘我們’은 2인칭 대명사 ‘你們’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 ‘우리’ 와 ‘我們, 咱們’의 대비

앞선 ‘가, 나’ 두 절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1인칭 대명사의 복수 대명사 ‘우리’와 ‘我們, 咱們’의 의미와 용법을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1인칭 복수 대명사의 용법을 예문을 통해서 대조하고 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7) 어머니, 우리 오늘 도봉산에 갈까요?

媽媽, 我們/咱們今天去爬山嗎?

예문(7)에서는 한국어에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청자 포함하는 경우에서 중국어‘我們, 咱們’과 대응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8) 동생: 오빠는 주말에 뭐해? 우리는 등산하러 가는데.

오빠: 나는 학원 갈 거야.

弟弟: 哥哥周末干什么? 我們要去登山.

哥哥: 我要去學院.

예문(8)에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화자와 제3자를 지칭하고 청자를 배제하는 경우에서‘우리’와 ‘我們’ 대응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咱們’을 대응 할 수 없다.

(9) a. 지금은 우리의 발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살펴봅시다.

現在來分析一下我們的發表內容.

b. 우리 반 내일 소풍하러 가는데, 너희 반은 언제가?

我們班明天去郊游, 你們班什麼時候去?

예문(9)에서는 한국어에서 ‘우리’를 환경에 따라 단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중국어‘我們’와 대응해서 사용할 수 있다. (9a)보면 ‘우리’는 ‘나’를 지칭하여 ‘우리’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감추었다. 이런 경우에서 공손한 태도를 표현할 때 ‘我們’와 대응해서 사용할 수 있다. (9b)보면 ‘너희’가 있기 때문에 같은 소속에 아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나’로 볼 수 있다.

(10) 우리 아기 참 말 잘 들어.

我們寶貝真乖.

예문(10)에서는 한국어에서 ‘우리’뒤에 인칭명사를 결합하여 친근감을 표현한 경우에 중국어‘我們’ 와 대응해서 사용할 수 있다.

(11) 우리 이제 그만 하고 집에 가자.

我們就到這,回家吧!

예문(11)에서는 대화 환경에 따라서 ‘우리’와 ‘我們’을 그대로 화자와 청자 포함한 여러 사람으로 볼 수 있다. 화자를 ‘우리’로 지칭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고 청자와의 대립관계를 약화시키며 권하는 표현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와 ‘我們’은 대응할 뿐만 아니라 생략할 수도 있다.

(12) 선생님: 리리, 내일 우리 소풍 갈 준비 다 했어?

老師: 麗麗, 明天我們去郊游都準備好了嗎?

수지: 선생님, 저희 같이 가도 되요.

秀智: 老師, 我們也可以去嗎?

선생님: 그래, 너희들도 같이 가자.

老師: 好吧,你們也一起去吧.

예문(12)에서는 한국어에서는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와 ‘저희’가있어 화자와 청자의 사이를 고려해서 서로 구분할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 구분할 수 없다. 예문에서 보듯이 선생님 학생한테 ‘우리’를 사용하고 학생은 선생님에게 ‘저희’를 사용하지만 중국어에서 ‘我們’만 구분 없이 사용한다.

(13) 우리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我們正等你呢!(√)

咱們正等你呢!(×)

예문(13)에서는 ‘我們, 咱們’은 화자와 청자를 포함한 경우 다 사용하지만 청자를 배제한 경우는 ‘我們’만 사용하고 ‘咱們’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우리’와 ‘我們, 咱們’은 1:1로 대응할 수 없다. ‘우리’는 화자와 청자를 포함한 경우도 쓰이고 청자를 배제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는 ‘我們, 咱們’ 구분해서 사용한다.

(14) 우리 마누라/남편...

我妻子/我丈夫...

예문(14)에서는 ‘우리’는 ‘我們’를 대응하지 않고 ‘我’를 대응해서 사용하였다. 여기서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내’를 피하고 내집단 표현 ‘우리’를 사용하지만 중국어에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와 ‘我們’ 대응해서 사용할 수 없다. ‘我們’을 사용하지만 신나는 감정이 강조하기 때문에 한국어중 ‘우리 남편’과 사용현상이 다르게 볼 수 있다. 한국어 ‘우리’의 여기서 사용하는 경우의 한국어 ‘우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5) a.동생: 오빠, 우리 엄마 몇 시 올 거니?

妹妹: 哥,咱媽几点回來?

오빠: 글썄, 나도 모르겠네.

哥哥: 恩... 我也不知道.

b.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와.

明天來我家玩.

c. 오늘 저녁에 우리 남편이랑 영화 볼 거야.

今天晚上跟我老公去看電影。

예문(15)에서는 다 ‘우리’를 사용하지만 상황이 따라 중국어 대응 표현이 다르다. (15a)에서 같은 엄마의 자매사이에 ‘咱’을 사용해서 ‘우리’를 대응한다. (15b)에서는 청자와 가족관계 아닌 상황에서 중국어 ‘我’를 사용해서 한국어 대명사 ‘우리’를 대응한다. (15c)에서 ‘우리’뒤에 가족 인칭명사를 결합하여 중국어 번역할 때 ‘我’를 사용해서 ‘우리’를 대응한다. 예문을 통해서 화자가 청자와 가족관계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지만 중국어는 상황에 따라 ‘我們’을 사용하지 않고 ‘我,咱’을 대응해서 사용한다.

앞에서 예문을 통해 ‘우리’와 ‘我們, 咱們’의 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정리하여 ‘우리’와 ‘我們, 咱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음<표6>과 같다.

<표6> ‘우리’와 ‘我們, 咱們’의 공통점과 차이점

| | | 용법 | 우리 | 我們 | 咱們 |
|---|-------|------|----|----|----|
| 1 | 화자 지칭 | 칭자포함 | ○ | ○ | ○ |
| | | 칭자배제 | ○ | ○ | × |
| 2 | 數의 사용 | | ○ | ○ | × |
| 3 | 검정 표현 | | ○ | ○ | ○ |
| 4 | 존칭 제약 | | ○ | × | × |
| 5 | 명사 | | ○ | × | × |

* (○가능,×불가능)

<표6>를 통해‘우리’와 ‘我們, 咱們’의 공통점을 다음 세 가지 특징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화자 지칭한 경우에는 한국어에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청자 포함하는 경우에서 중국어‘我們, 咱們’과 대응해서 사용할 수 있다. ‘우리’를 사용하여 화자와 제3자를 지칭하고 청자를 배제하는 경우에서 ‘우리’와 ‘我們’ 대응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咱們’을 대응 할 수 없다.

둘째, 數의 사용한 경우에서 한국어에서 ‘우리’를 환경에 따라 단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중국어‘我們’와 대응해서 사용할 수 있다. ‘咱們’은 대응 할 수 없다.

셋째, 감정 표현한 경우에는 한국어에서 ‘우리’뒤에 인칭명사를 결합하여 친근감을 표현한 경우에 중국어‘我們’ 와 대응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화 환경에 따라서 ‘우리’와 ‘我們’을 그대로 화자와 청자 포함한 여러 사람으로 보며 원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와 ‘我們’은 대응할 뿐만 아니라 생략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와 ‘我們’은 대응할 뿐만 아니라 생략할 수도 있다.

‘우리’와 ‘我們, 咱們’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존칭 제약의 경우에는 한국어에서는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와 ‘저희’가있어 화자와 청자의 사이를 고려해서 서로 구분할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 구분할 수 없다.

둘째, 뒤에서 ‘+명사’ 하는 경우에는 명사가 가족관계일 때 ‘우리’는‘我們’를 대응하지 않고 ‘我’를 대응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화자가 청자와 가족관계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지만 중국어는 상황에 따라 ‘我們’을 사용하지 않고 ‘我, 咱’을 대응해서 사용한다.

본 절에서 제시된 ‘우리’와 ‘我們, 咱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한국어 ‘우리’의 용법을 ‘존칭 제약, +명사’사용한 경우에서 중국어 용법에서 존

재하지 않아서 오류를 많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으며, 또한 ‘청자 배제’의 용법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화자와 제3자를 지칭하고 청자를 배제하는 경우만 ‘우리’와 ‘我們’ 대응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오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추측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앞선 제시된 질문1을 위해 한국어 1인칭 대명사 ‘나’와‘우리’의 용법을 살펴보고 그와 대응하는 중국어 1인칭 대명사의 용법도 제시하였다. 제시하는 용법 통해서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중국인 학습자 실제로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질문2를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앞에서 추측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인 학습자 ‘나’와‘우리’ 사용 양상과 한국어 모어 화자 사용 양상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실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먼저 연구 대상을 설정하여, 연구 도구, 연구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연구 결과를 통해 ‘나’와‘우리’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겠다.

중국인 학습자의 ‘나’와 ‘우리’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에 앞서 한국어 교육에서 ‘나’와 ‘우리’를 어느 단계에서부터 제시하고 있으며 수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나’와‘우리’의 빈도수를 통해 ‘나’와 ‘우리’의 제시 현황을 알아보려고 한다.

3.1 연구 대상

중국인 학습자의 ‘나’와 ‘우리’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에 앞서 한국어 교육에서 ‘나’와 ‘우리’를 어느 단계에서부터 제시하고 있으며 수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나’와 ‘우리’의 빈도수를 통해 ‘나’와 ‘우리’의 제시현황을 알아보려고 한다.¹⁰⁾ 제

10) 박신신(2013)에서 각 한국어 교재에서‘나’와 ‘우리’의 등급 별로 나오는 빈도수

시된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빈도수를 보면 ‘나’는 초급에서 제일 적게 나타나고, 중급과 고급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보인다. ‘나’와 ‘우리’는 초급부터 배우지만 빈도수를 보면 중급과 고급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 실제로 ‘나’와 ‘우리’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사용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제외하고 중급과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정한다.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를 조사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1,2,3인칭 대명사의 빈도수는 높낮이 순서대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나’와 ‘우리’ 빈도수 가장 높은 것을 보인다.

| | 빈도수 |
|----|-------|
| 나 | 10546 |
| 우리 | 6583 |

<표1> 한국어 교재의 ‘나’의 빈도수

| 등급 | | 동국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연세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총계 |
|----|---|----------|----------------|----------|------------|-----|
| | | <함께 배워요> | 교 <배우기 쉬운 한국어> | <연세 한국어> | 교 <이화 한국어> | |
| 초급 | 1 | 9 | 11 | 19 | 11 | 156 |
| | 2 | 16 | 6 | 34 | 50 | |
| 중급 | 3 | 17 | 32 | 51 | 38 | 313 |
| | 4 | 30 | 56 | 53 | 36 | |
| 고급 | 5 | 30 | 40 | 40 | 21 | 244 |
| | 6 | 17 | 38 | 40 | 18 | |

<표2> 한국어 교재의 ‘우리’의 빈도수

| 등급 | | 동국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연세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총계 |
|----|---|----------|----------------|------------|------------|-----|
| | | <함께 배워요> | 교 <배우기 쉬운 한국어> | 교 <연세 한국어> | 교 <이화 한국어> | |
| 초급 | 1 | 5 | 6 | 9 | 8 | 162 |
| | 2 | 40 | 15 | 13 | 66 | |
| 중급 | 3 | 40 | 85 | 87 | 66 | 541 |
| | 4 | 84 | 83 | 60 | 36 | |
| 고급 | 5 | 80 | 55 | 92 | 57 | 557 |
| | 6 | 16 | 136 | 72 | 49 | |

첫째, 한국어 모어 화자 실제로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부산에 거주하는 한국어 모어 화자 대학생 8명, 직장인 12명, 이중에 20대 11명, 30대 6명, 40대 3명, 총20명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표7> 한국어 모어 화자 연구 대상

| | 한국어 모어 화자 |
|----------------|------------------------------|
| 거주 지역 (명) | 부산 |
| 사례 수 (남 : 여) | 총 20 명 (2:18) |
| 직업 (명) | 학생 (8명), 직장인 (12명) |
| 연령대 (명) | 20대(11명), 30대(6명) 40대(3명) |

둘째, 중국인 학습자 연구 대상은 부산의 거주하는 중·고급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포함)17명, 직장인 23명, 이중에 20대 24명,30대 16명 총40명으로 설정하여 학생과 직장인은 2년에서 8년까지 (평균 3.65년) 거주하는 학습자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표8> 중국인 학습자 연구 대상

| | 중국인 학습자 |
|----------------|---------------------|
| 거주 지역 (명) | 부산 |
| 사례 수 (남 : 여) | 총 40 명 (15 : 25) |
| 직업 (명) | 학생 (17명), 직장인 (23명) |
| 연령대 (명) | 20대(24명), 30대(16명) |
| 한국거주기간 | 1년 이상 (평균3.65년) |

| | 중국인 학습자 |
|----------|------------------|
| TOPIK 등급 | 중급(14명), 고급(26명) |

본 연구 대상에서 초급 학습자가 문법이나 어휘양이 적어서 연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에서 초급 학습자가 제외하고 실시한다.

3.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나’와 ‘우리’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도구는 설문지로 선택하였다. 설문지는 학습자에게 주어진 문제를 읽고 직관적으로 판단하여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는 객관식 문항으로 선정하여 선다형 문항과 판정식 문항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제시한 선다형 문항은 앞서 선행연구의 용법 따라 한 용법 2개씩 뽑아 진행 할 것이다. 학습자에게 주어진 문제를 읽고 직관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한 문제가 제시된 항목을 4개중 한 개만 선택한다. 그러나 용법의 차이점의 대한 사용 양상을 보기 위해 정오 판정 형식으로 판정식 문항으로 조사한다. 본 설문지는 각 문항의 선택지의 백분율로 변환하여 해당문제 사용 양상을 분석 할 것이다.

<표9> 정답률 계산하는 방법

$$\text{정답률} = (\text{응답자수} / \text{총 응답자수}) * 100$$

판단 문항을 선택한 경우 뒤에서 선택하는 원인을 통해서 분석하여 그에는 사회문화나 화용론적 용법인지 분석할 것이다. 판정식 통해서 정확히 파악하는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첫째, 선다형 문항은 ‘나’와‘우리’의 그에 용법의 따라서 한 용법 2개씩 문제를 뽑아서 한 문제는 4가지 항목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는 판정식 문항이다. 2.4에서 살펴보았듯이 ‘나’·‘우리’와 중국어‘我, 我們, 咱, 咱們’의 차이점을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점을 실제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인식하고 알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해당하는 문제 형식은 먼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용법을 2가지씩 뽑아서 정오 판단을 진행할 것이다. 다음은 선다형과 판정식 문항의 선정 방법을 제시한다.

<표10> ‘나’와‘우리’의미 용법에 따른 문항의 유형

| | 용법 | | 나 | 우리 | 문항 수 | |
|---|-----------|--------|---|----|------|-----|
| | | | | | 선다형 | 판정식 |
| 1 | 화자 지칭 | 칭자 포함 | × | ○ | 2 | 2 |
| | | 칭자 배제 | ○ | ○ | 4 | 4 |
| 2 | 호칭어 대신 지칭 | | ○ | × | 2 | 2 |
| 3 | 존칭 제약 | | ○ | ○ | 4 | 4 |
| 4 | 형태 변화 | | ○ | × | 2 | 2 |
| 5 | 수의 사용 | 단수 표현 | ○ | ○ | 4 | 4 |
| | | 복수 표현 | × | ○ | 2 | 2 |
| 6 | 검정 표현 | 친근감 표현 | × | ○ | 2 | 2 |
| | | 권하는 표현 | × | ○ | 2 | 2 |

| | | | | | | |
|----|----------|--------|---|---|----|----|
| 7 | 2인칭대신 사용 | | × | × | × | × |
| 8 | 명사 | 공식적 장소 | × | ○ | 2 | 2 |
| | | 가족 관계 | ○ | ○ | 4 | 4 |
| 합계 | | | | | 30 | 30 |

* (○가능,×불가능)

‘나’와‘우리’의 용법에 따라 선다형 문항30개와 판정식 문항30개를 뽑아서
설문지를 만들었다. 다음에 설문지의 일부분항 선다형 을 제시한다.

<표11> 설문지 일부 - 선다형 문항

다음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請在()里選擇您認為正確的選項。

3. (철수가 엄마에게)

엄마, () 배고파, 밥 좀 줘요.

-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8. (A와B싸우고 있다)

A씨가 “왜 () 한테만 그래?”라고 소리를 질렀다.

-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15. 외국인들이 () 나라의 김치와 불고기를 제일 좋아한다.

-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19. A: 어제 뭐 했어?

B: () 남자친구 하고 같이 영화 봤어.

-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다음에 설문지의 일부분항 판정식을 제시한다.

<표12> 설문지 일부 - 판정식 문항

다음을 읽고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자연스러우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면(×)을 표시해 주세요. 讀下面的句子, 如果覺得自然的打(○)覺得不自然的打(×)。

- () 4. (동생이 오빠에게)
오빠 주말에 뭐해? 우리 등산하러 가는데.
- () 9. (학생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나는 먼저 가겠습니다.
- () 12. (언니가 동생에게)
내가 지갑 사줄게.
- () 26. 어제는 오랜만에 우리 약혼자 만났어요.

모든 문항은 국어사전에 예문과 앞에 선행연구에 예문에서 출제된 문장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그리고 문항 순서를 바꾸어 고루 섞이도록 하였다. 문제를 푸는 데에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중급의 어휘를 사용하였다.

위에서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실험 결과는 엑셀에 답안을 코딩하여 결과를 통계 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를 사용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수집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간의 ‘나’와 ‘우리’의 용법별 사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본 실험은 2018년 4월에 실시하였다.

IV. 결과 분석

제3장에서는 연구 대상과 연구 도구를 제시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 설문지를 통해 설문 조사 진행하였다. 본 장에서 설문 조사의 결과를 제시하고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를 비교하면서 ‘나’와 ‘우리’의 사용 양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가 숙달도 등에 영향을 있는지의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4.1 ‘나’의 사용 양상

설문 조사를 참여한 한국어 모어화자 20명과 중국인 학습자 40명의 선다형과 판정식의 평균 정답률을 모두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겠다.

<표13>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 ‘나’의 용법에 대한 t검정 결과

| | 용법 | 집단 | n | 정답률 | 표준편차 | t | 유의확률 |
|---|-----------|-------|----|-------|-------|-------|-------|
| 1 | 화자 지칭 | 모어 화자 | 20 | 97.5 | 14.59 | 5.250 | 0.602 |
| | | 학습자 | 40 | 86.63 | 9.15 | | |
| 2 | 호칭어 대신 지칭 | 모어 화자 | 20 | 97.5 | 14.27 | 11.82 | 0.242 |
| | | 학습자 | 40 | 89.53 | 9.15 | | |
| 3 | 존칭 제약 | 모어 화자 | 20 | 98.75 | 14.25 | 5.240 | 0.603 |
| | | 학습자 | 40 | 88.37 | 14.59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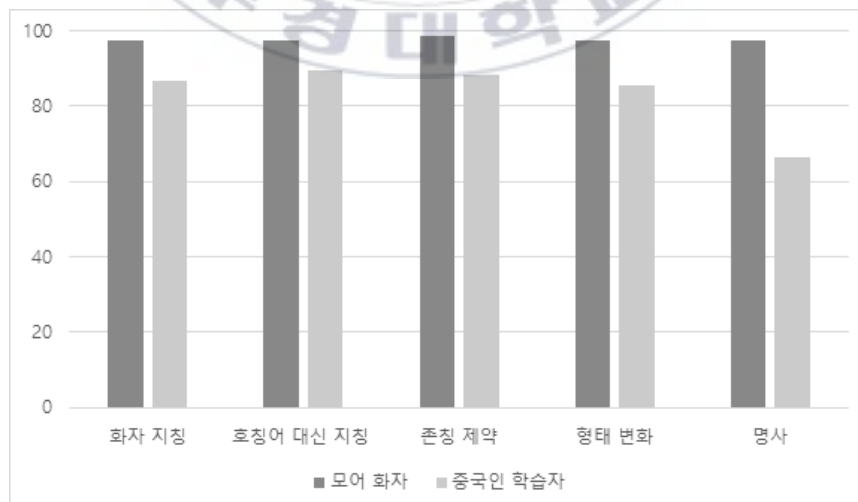
| | | | | | | | |
|---|-------|-------|----|-------|-------|-------|---------|
| 4 | 형태 변화 | 모어 화자 | 20 | 97.5 | 9.85 | 4.750 | 0.637 |
| | | 학습자 | 40 | 85.46 | 12.88 | | |
| 5 | 명사 | 모어 화자 | 20 | 97.5 | 5.59 | 4.930 | 0.006** |
| | | 학습자 | 40 | 66.86 | 25.11 | | |

*p<0.05, **p<0.01

위에 표와 같이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나’의 용법에 따른 ‘명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자 지칭, 호칭어 대신 지칭, 존칭 제약, 형태 변화’등 용법에서는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명사’본 연구 2장에서 예측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상은 세부항목 분석 결과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다음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나’의 용법에 평균 정답률 그래프를 제시한다.

<표14> ‘나’의 용법에 정답률 비교 그래프



한국어 모어 화자는 ‘나’의 대한 용법을 종합하여 문항의 정답률이 97.75 점 이상인 것에 비해 중국인 학습자는 용법에 따라 순서대로 점수가 86.63, 89.53, 88.37, 85.46, 66.86 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모어 화자 평균 정답률이 97.75점인 것에 비해 중국인 학습자는 점수가 평균 83.37점으로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격차를 보면 평균 격차가 14.38점이다. 평균 격차 보다 높게 나타나는 용법 중 ‘나 +명사’의 용법을 오류를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앞에서 2.2절에서 예측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가 ‘나’에 비하여 ‘나 +명사’의 용법을 사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기간에 따라 ‘나’의 사용 양상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숙달도의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숙달도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수준을 기입하도록 하였으나 중급(3,4급)이 18명, 고급(5,6급)이 22명이었다. ‘나’에 사용 양상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15> 중급과 고급 집단의 ‘나’의 사용 양상에 대한 t 검정 결과

| | 용법 | 집단 | n | 정답률 | 표준편차 | t | 유의확률 |
|---|-----------|----|----|-------|-------|-------|------|
| 1 | 화자 지칭 | 중급 | 18 | 74.99 | 12.87 | 2.037 | 0.53 |
| | | 고급 | 22 | 90.47 | 14.43 | | |
| 2 | 호칭어 대신 지칭 | 중급 | 18 | 81.84 | 16.71 | 19.70 | 0.66 |
| | | 고급 | 22 | 84.59 | 11.81 | | |
| 3 | 존칭 제약 | 중급 | 18 | 81.94 | 16.71 | 10.83 | 0.29 |
| | | 고급 | 22 | 92.85 | 17.20 | | |
| 4 | 형태 변화 | 중급 | 18 | 79.16 | 9.73 | 5.41 | 0.59 |
| | | 고급 | 22 | 85.95 | 14.28 | | |
| 5 | 명사 | 중급 | 18 | 67.61 | 33.92 | 4.35 | 0.66 |

| | | | | | | | |
|--|--|----|----|-------|-------|--|--|
| | | 고급 | 22 | 73.61 | 24.02 | | |
|--|--|----|----|-------|-------|--|--|

*p<0.05, **p<0.01

위에 표는 중국인 학습자 숙달도의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보이는 바와 같이 ‘나’의 용법의 대한 중급과 고급 학습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의 평균 정답률 보면 중급 학습자에 비해 고급 학습자들이 ‘나’의 용법에 대해 더 정확하게 사용하게 됨을 나타내는 것은 볼 수 있다. 또한 평균 격차 보다 높게 나타나는 용법을 ‘화자 지칭, 존칭 제약’ 차이가 제일 크다는 점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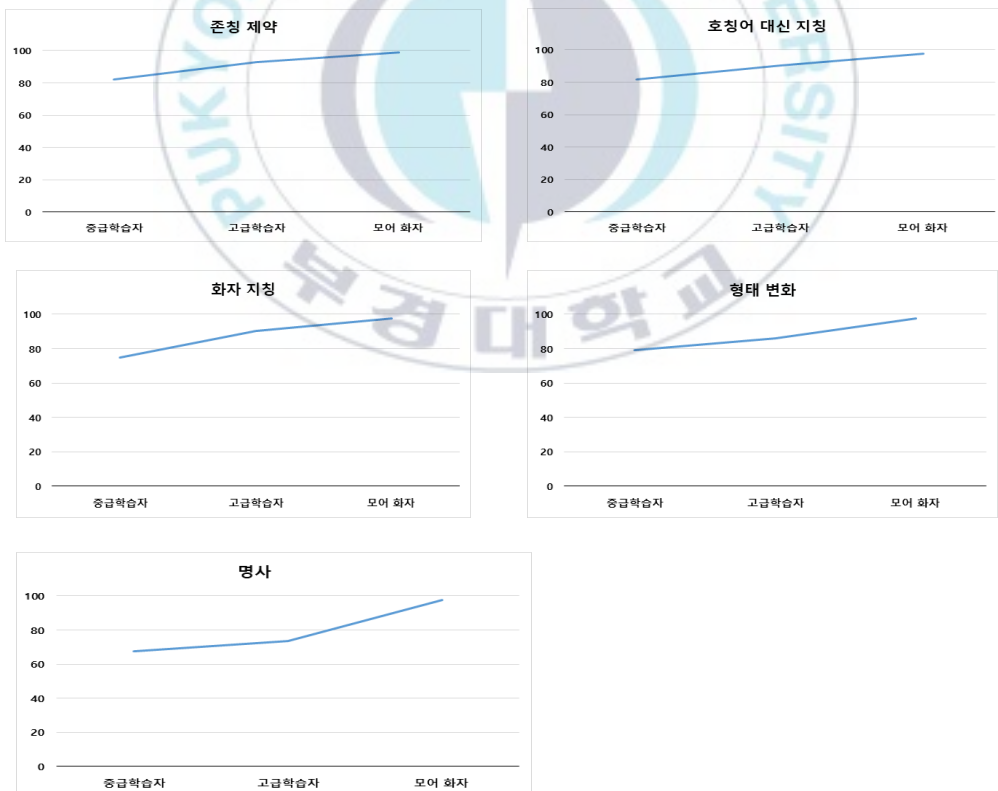
<표16> ‘나’의 용법 항목별 오류 양상

| | | 모어 화자 (n=20) | | | | 학습자 (n=40) | | | |
|----|-----------|--------------|----|-------|--------|------------|-------|-------|--------|
| | | 선택률 (%) | | | | 선택률 (%) | | | |
| | | 나 | 우리 | 모두 가능 | 모두 불가능 | 나 | 우리 | 모두 가능 | 모두 불가능 |
| 1 | 화자 지칭 | 97.5 | 0 | 2.5 | 0 | 86.63 | 2.51 | 10.86 | 0 |
| 2 | 호칭어 대신 지칭 | 97.5 | 0 | 2.5 | 0 | 89.53 | 5.2 | 5.27 | 0 |
| 3 | 존칭 제약 | 98.75 | 0 | 1.25 | 0 | 88.37 | 3.56 | 8.07 | 0 |
| 4 | 형태 변화 | 97.5 | 0 | 2.5 | 0 | 85.46 | 4.52 | 10.02 | 0 |
| 5 | +명사 | 97.5 | 0 | 2.5 | 0 | 66.86 | 15.68 | 17.46 | 0 |
| 합계 | | 97.75 | 0 | 2.25 | 0 | 83.37 | 6.29 | 10.33 | 0 |

위에 표는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중 ‘나’와 ‘우리’를 어떻게 구분하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모어 화자의 경우 ‘모두 가능’의 답안을 선택한 비율이 평균2.25이며, ‘우리’의 선택하는 사람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어 화자가 ‘나’와 ‘우리’ 충분히 구분해서 대체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는 ‘모두 가능’ 선택한 비율은 10.33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선택한 비율은 6.29로 모어 화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중 ‘+명사’한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 용법을 사용한 경우 중국인 학습자가 ‘나’와 ‘우리’ 잘 구분하지 않고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 ‘나’의 사용 양상 분석



중국인 학습자 ‘나’의 사용 양상을 보면 ‘호칭어 대신 지칭’의 용법을 모국어와 용법 대응하기 때문에 중급 학습자부터 고급 학습자 까지 습득이 잘 되고 있다. ‘화자 지칭, 존칭 제약, 형태 변화’의 용법을 숙달도 따라 중급보다 고급 학습자가 습득이 더 잘 되고 있다. ‘명사’의 용법에서는 중급부터 고급까지 습득되기 힘들다는 점을 보았다.

4.2 ‘우리’의 사용 양상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우리’의 용법에 선다형과 판정식 정답률을 모두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겠다.

<표17>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 ‘우리’의 용법에 대한 t검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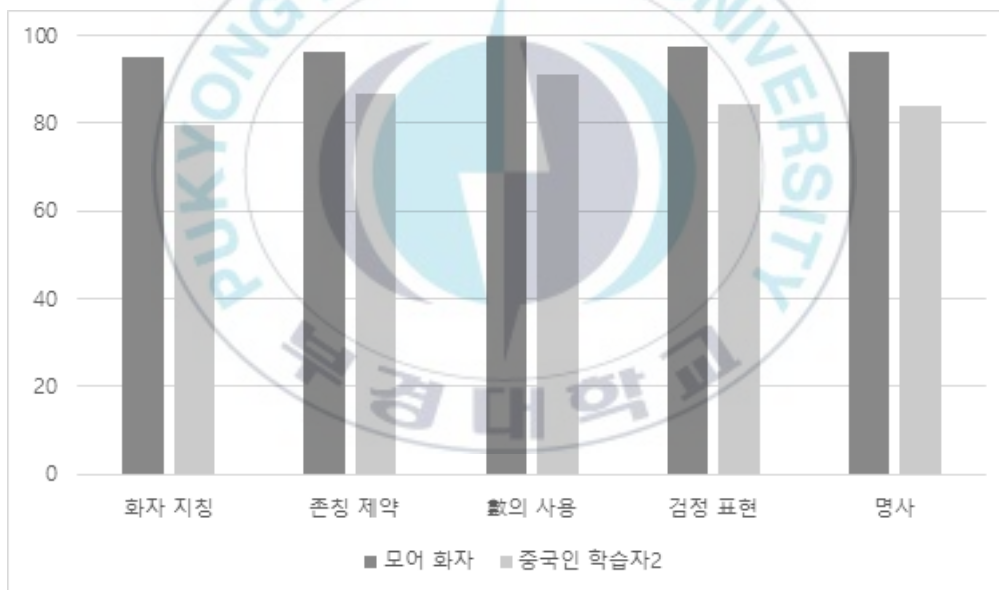
| | 용법 | 집단 | n | 정답률 | 표준편차 | t | 유의확률 |
|---|-------|-------|----|-------|-------|-------|---------|
| 1 | 화자 지칭 | 모어 화자 | 20 | 95 | 9.31 | 25.27 | 0.015* |
| | | 학습자 | 40 | 79.64 | 13.70 | | |
| 2 | 존칭 제약 | 모어 화자 | 20 | 96.25 | 10.26 | 13.71 | 0.176 |
| | | 학습자 | 40 | 86.81 | 21.68 | | |
| 3 | 數의 사용 | 모어 화자 | 20 | 100 | 5.37 | 19.64 | 0.055 |
| | | 학습자 | 40 | 91.27 | 9.67 | | |
| 4 | 검정 표현 | 모어 화자 | 20 | 97.5 | 4.92 | 29.53 | 0.005** |
| | | 학습자 | 40 | 84.3 | 17.44 | | |
| 5 | +명사 | 모어 화자 | 20 | 96.25 | 14.56 | 1.46 | 0.88 |
| | | 학습자 | 40 | 84.08 | 13.48 | | |

*p<0.05, **p<0.01

위에 표와 같이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우리’의 용법에 따른 ‘화자 지칭, 감정 표현’ 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칭 제약, 數의 사용, +명사’등 용법에서는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화자 지칭’은 2장에서 예측한 것과는 똑같이 나오고 ‘감정 표현’은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상은 세부항목 분석 결과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다음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우리’의 용법에 평균 정답률 비교과 정답률 그래프를 제시한다.

<표18> ‘우리’의 용법에 정답률 비교 그래프



한국어 모어 화자는 ‘우리’의 대한 용법을 정답률이 96.66점 이상인 것에 비해 중국인 학습자는 용법에 따라 순서대로 점수가 79.64, 86.81, 91.27, 84.3, 84.08 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평균 84.29점 모어 화자 보다 늦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격차를 보면 평균 격차

보다 높게 나타나는 용법 중 ‘화자 지칭, 감정 표현’ 용법을 사용할 때 오류가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명사’한 용법에서 평균 격차와 크게 차이 없는 것은 보면 오류를 이 용법에서 도 오류를 많이 나타냈다. 이 결과는 앞에서 2.3절에서 예측한 것과는 두 가지 용법을 똑같이 나타냈다.

또한 학습기간에 따라 ‘우리’의 사용 양상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의 숙달도의 따라 한국어 능력시험 합격 등급을 기준으로 중급과 고급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우리’에 사용 양상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표19> 중급과 고급 집단의 ‘우리’의 사용 양상에 대한 t 검정 결과

| | 용법 | 집단 | n | 정답률 | 표준편차 | t | 유의확률 |
|---|-------|----|----|-------|-------|------|--------|
| 1 | 화자 지칭 | 중급 | 18 | 70.33 | 19.09 | 1.80 | 0.95 |
| | | 고급 | 22 | 83.57 | 8.83 | | |
| 2 | 존칭 제약 | 중급 | 18 | 69.30 | 17.94 | 4.22 | 0.01* |
| | | 고급 | 22 | 78.21 | 13.88 | | |
| 3 | 數의 사용 | 중급 | 18 | 84.72 | 14.55 | 8.08 | 0.434 |
| | | 고급 | 22 | 97.14 | 6.25 | | |
| 4 | 감정 표현 | 중급 | 18 | 74.30 | 20.95 | 2.56 | 0.022* |
| | | 고급 | 22 | 86.94 | 12.64 | | |
| 5 | 명사 | 중급 | 18 | 75.69 | 16.85 | 2.86 | 0.779 |
| | | 고급 | 22 | 88.38 | 9.76 | | |

*p<0.05, **p<0.01

위에 표는 중국인 학습자 숙달도의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존칭 제약, 감정 표현’ 용법의 대한 중급과 고급 학습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중급보다 고급 더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의 볼 수 있다. 또한 ‘우리’의 다른 용법의 중급과 고급 학습자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균 정답률을 살펴보겠다.

<표20> ‘우리’의 각 용법 항목에 세부 평균 정답률 비교

| | 용법 | | 모어 화자 (n=20) | 학습자 (n=40) | 격차 |
|----------|-------|--------|-----------------|---------------|-------|
| 1 | 화자 지칭 | 청자 포함 | 97.5 | 86.04 | 11.46 |
| | | 청자 배제 | 92.5 | 73.25 | 19.25 |
| 2 | 존칭 제약 | | 97.5 | 90.69 | 6.81 |
| 3 | 數의 사용 | | 100 | 93.02 | 6.98 |
| 4 | 검정 표현 | 친근감 표현 | 96.25 | 84.3 | 11.95 |
| | | 권하는 표현 | 98.75 | 84.3 | 14.45 |
| 5 | 명사 | 공식적 장소 | 96.25 | 87.21 | 9.04 |
| | | 가족 관계 | 96.25 | 80.95 | 15.3 |
| 총 합계(평균) | | | 96.66 | 84.28 | 12.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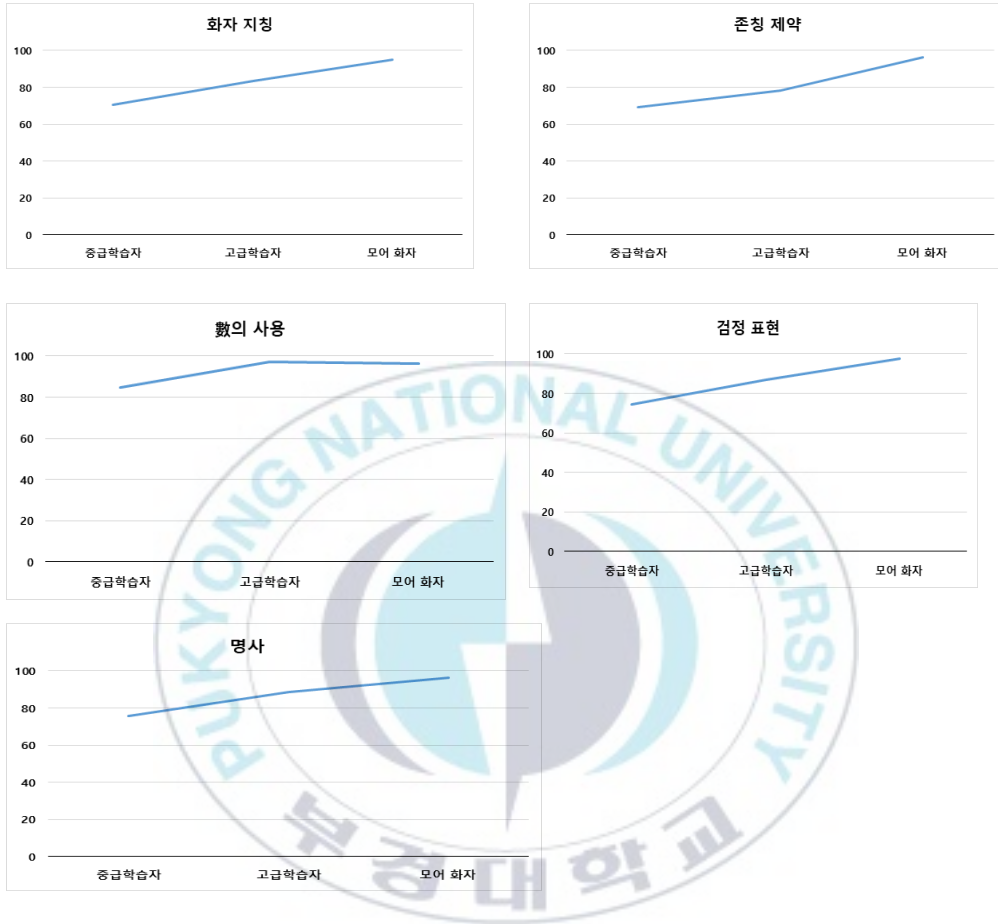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의 평균 응답률 보면 중급 학습자에 비해 고급 학습자들이 ‘우리’의 용법에 대해 더 정확하게 사용하게 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평균 격차 보다 높게 나타나는 ‘청자 포함, 數의 사용, 검정 표현, +명사’ 용법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을 보인다. 또한 오류 많이 나타나는 용법 중에 세부 항목별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용법 항목 세부 평균 정답률을 보면 평균 격차 보다 높게 나타나는 ‘청자 배제, 권하는 표현, +가족 관계’용법의 큰 격차를 볼 수 있다.

<표21> ‘우리’의 용법 항목별 오류 양상

| | | 모어 화자 (n=20) | | | | 학습자 (n=40) | | | |
|-----------|-------|--------------|-------------|-------------|-----------|--------------|-------------|--------------|-----------|
| | | 선택률(%) | | | | 선택률(%) | | | |
| | | 우리 | 나 | 모두 가능 | 모두 불가능 | 우리 | 나 | 모두 가능 | 모두 불가능 |
| 1 | 화자 지칭 | 95 | 1.25 | 3.75 | 0 | 79.64 | 5.25 | 15.11 | 0 |
| 2 | 존칭 제약 | 96.25 | 0 | 3.75 | 0 | 86.81 | 3.09 | 10.1 | 0 |
| 3 | 數의 사용 | 100 | 0 | 0 | 0 | 91.27 | 0 | 8.73 | 0 |
| 4 | 검정 표현 | 97.5 | 0 | 2.5 | 0 | 84.3 | 2.3 | 13.4 | 0 |
| 5 | +명사 | 96.25 | 0 | 3.75 | 0 | 84.29 | 5.25 | 10.46 | 0 |
| 합계 | | 97 | 0.25 | 2.75 | 0 | 85.26 | 3.17 | 11.56 |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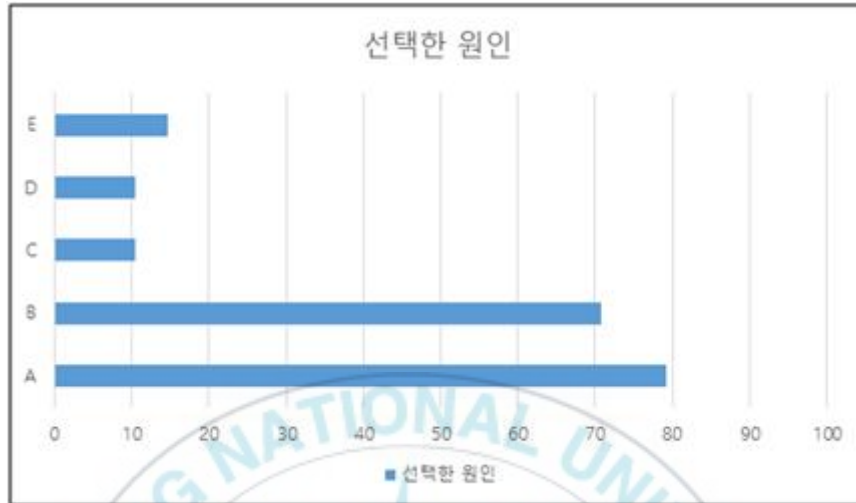
위에 표는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중 ‘우리’와 ‘나’를 어떻게 구분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다. 모어 화자의 경우 ‘모두 가능’선택한 비율은 2.75이고, ‘나’의 선택한 비율은 0.25로 낮게 나타났다. 모어 화자가 ‘우리’와 ‘나’를 충분히 인식하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의 알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는 ‘나’의 선택한 비율이 3.17로 나타나고, ‘모두 가능’선택한 비율은 ‘11.56’로 모어 화자 보다 아주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우리’와 ‘나’를 인식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2> ‘우리’의 사용 양상 분석



중국인 학습자 ‘우리’의 사용 양상을 보면 ‘數의 사용’ 용법을 중급 학습자부터 습득이 잘 되고 있다. ‘감정 표현, 화자 지칭, 명사’의 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중급보다 고급 학습자가 습득이 더 잘 되고 있다는 점을 보았다. ‘존칭 제약’의 용법에서는 중급과 고급 학습자가 모두 습득되기 힘들다는 점을 보았다. 전체로 보면 ‘나’보다 ‘우리’가 더 습득이 힘들다.

<표22> ‘나’와‘우리’ 선택한 원인 분석



위에 표에서 선택하는 원인 분석 중에 A ‘한국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의 79.17로 제일 많이 나타나고, 둘째는 B ‘내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다.’는 70.83로 나타났다. C ‘나의 모국어를 생각해서 선택했다.’와 D ‘잘 모르겠지만 그냥 선택했다.’의 선택하는 비율은 똑같이 10.42로 나타났다. 마지막 E ‘기타’로 선택하는 사람은 14.58로 나타났다. 여기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 할 때 한국 사람은 말하는 것을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서 한국 사람은 말하는 때로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나’와‘우리’의 사용 양상을 통해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간의 평균 정답률의 격차를 비교하였을 때 ‘나’ 뒤에서 명사(가족관계)’의 용법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우리’의 용법 중 ‘칭자 배제, 감정 표현, 명사’의 용법을 격차가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가 ‘우리’보다‘나’를 더 쉽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우리’를 사용 할 때 조금 혼란스러운 점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중국인 학습자의 ‘나’와‘우리’의 사용 양상을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질문 1을 위해 앞선 2장에서 ‘나’와‘우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 차이점을 통하여 오류 많이 나타나는 용법을 예측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 실험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나’와‘우리’의 사용 양상을 보면 ‘나’보다‘우리’ 사용에 있어서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 질문 2인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교 할 때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모든 부분에서 격차를 나타냈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가 ‘나’와 ‘우리’의 사용 양상을 보면 중국어 용법을 중에 존재 하지 않는 용법을 오류를 많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예측한 것과 달리 ‘명사’ 용법을 사용할 때 둘 다 오류를 많이 나타냈다. 이것은 중국인 학습자가 ‘나’와 ‘우리’을 사용할 때 잘 구분하지 않고 대체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셋째, ‘나’와‘우리’의 용법을 중에 예측한 것과 달리 오류를 많이 나타나지 않은 용법을 ‘존칭 제약’이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학습할 때 어려움을 느껴서 한국어 학습할 때 집중 학습하기 때문이다. ‘나’와 ‘우리’의 정답률 격차를 보면 예측한 것보다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숙달고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면 중급 학습자가 비해 고급 학습자들이 용법별 더 정확하게 사용하게 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대체적으로 숙달도와 모국어 간섭 그리고 ‘나’와‘우리’의 용법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아서 인해 오류 양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가 ‘나’와 ‘우리’가 용법의 대해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용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사용 차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한다. ‘나’와 ‘우리’의 오류 빈도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1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나’와 ‘우리’의 용법을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밝혔다. 한국어 ‘나’와 ‘우리’와 중국어 ‘我, 咱, 我們, 咱們’의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중국인 학습자가 ‘나’와 ‘우리’의 용법을 사용할 때 한국어 모어 화자와 차이를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 질문과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 인칭대명사 체계를 제시하였다. 다음에 ‘나’와 ‘우리’의 의미 및 용법을 국어사전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我, 咱, 我們, 咱們’의 의미 및 용법을 국어사전과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본 후에 중국어와 한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점을 구분하여 학습하지 않으면 ‘나’와 ‘우리’의 사용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실제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지를 만들어 먼저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도구는 설문지를 선택하여 객관식 문항으로 선정하여 선다형 문항과 판정식 문항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제시한 선다형 문항은 앞서 선행연구의 용법 따라 한 용법 2개씩 뽑아 총 60개 문항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백분율로 변환하여 해당문제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나’와 ‘우리’를 한국어 모어 화자가 실제로 사용 양상을 제시한 다음에 중국인 학습자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설문지의 선다형과 판정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중국인 학습자가 ‘나’와 ‘우리’의 사용 양상을 보면 ‘나’보다 ‘우리’ 사용에 있어서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가 ‘나’와 ‘우리’의 사용 양상을 보면 중국어 용법을 중에 존재 하지 않는 용법을 오류를 많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예측한 것과 달리 ‘+명사’ 용법을 사용할 때 둘 다 오류를 많이 나타냈다. ‘나’와 ‘우리’의 정답률 격차를 보면 ‘존칭 제약’ 용법을 사용할 때 예측한 것보다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숙달도 보면 중급 학습자가 비해 고급 학습자들이 용법별 더 정확하게 사용하게 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보고 분석한 결과로 ‘나’와 ‘우리’의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가 ‘나’와 ‘우리’의 사용에 있어서의 오류 원인을 발견하고 ‘나’와 ‘우리’의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와 ‘우리’의 사용 양상 실험을 통해 오류 원인이 모국어 간섭과 ‘나’와 ‘우리’의 용법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발견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에게 1인칭 대명사 ‘나’와 ‘우리’의 학습하는 과정에서 더 효율적이고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 黎錦熙(1924), 『新著國語文法』, 商務印書館.
- 王力(2011), 『中國現代語法』, 北京:商務印書館.
- 최형용(2016), 『한국어 형태론』, 역락.
- 고영근·구본관(2010),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황용순(2010), 『두고 두고 보는 중국어 어법 교과서』, 리브리언.
- 강식진·이수진(2010), 『현대한어 문법 신해』, 형설출판사.
- 엄상천(2006), 『최강 HSK 어법』, 혜지원.
- 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2012), 『함께 배워요1-6』, 동국대학교출판부.
- 성균 어학원(2007), 『배우기 쉬운 한국어1-6』,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7), 『연세 한국어 1-6』, 연세대학교출판부.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1), 『이화 한국어1-6』, Epress.
- 이익섭(2005),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 사전

- 이희승(2008),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박용수((2007), 『우리말 활용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편집부(2006), 『현대 한중 중한사전』, 외어교학 연구출판사(중국)
- 박영중(2009), 『현대 중한사전』, 교학사.
- 고대민족문화연구원 중국어대사전편집부(2004), 『중한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3. 논문

- 윤재학(2003), “단수적 용법의 우리”, 『언어와 정보』 제7권 제2호, 한국어 정보학회, 1-30.
- 이기문(1978), “국어의 인칭대명사”, 『관악어문연구』 3, 325-338.
- 강사희(1979), “人稱代名詞의 話脈에서의 機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혜령(2016), “1인칭 대명사의 의미 분석 - 의미 실현 조건 분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70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67-294.
- 이한규(2007), “한국어 대명사 ‘우리.’ ” 『담화와 인지』 제14권 3호, 담화인지언어학회, 155-177.
- 최인지(2012), “일인칭 복수 대명사의 절차적 의미와 관련성”, 『언어학』 제20권 제2호, 대한언어학회, 171-197.
- 이서영(2017), “1인칭 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에 관한 한국어교육학적 연구- ‘우리’와 ‘내’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병순(1982), “일인칭 대명사 ‘우리(들)’의 의미와 용법”, 『배달말』 제21호, 배달말학회, 95-112.
- 朴宣東(1983), “國語人稱代名詞의 話用論的研究: 조응적(anaphoric)시점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張春泉(2005), 「第一人稱代詞의 虛指及其心理動因」, 浙江大學學報
- 왕금화(2007), “한국어와 중국어의 인칭대명사 대조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등엽추(2012), “한·중 인칭대명사의 대비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오봉엽(2012), “한·중 1인칭 대명사의 대조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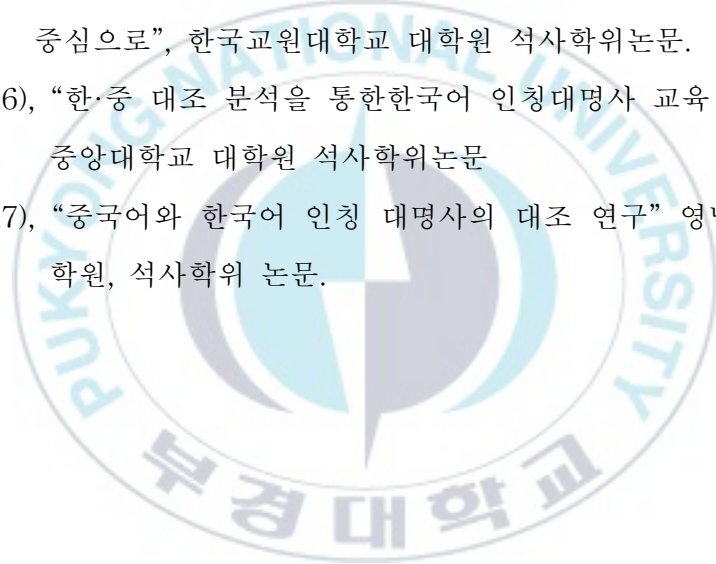
장판(2012), “한국어 인칭대명사의 교육방안 연구-초·중급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우유(2014), “한국어와 중국어의 인칭 대명사 비교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찬(2014), “한·중 인칭대명사의 화용적 용법의 비교 연구 - 1, 2, 3인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설봉(2016), “한·중 대조 분석을 통한한국어 인칭대명사 교육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시예(2017), “중국어와 한국어 인칭 대명사의 대조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국문 초록

1인칭 대명사는 언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며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어는 대우 대상에 따라 대응 표현을 다르게 써야 한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도 사용할 때 제한을 많이 받지만 중국어는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어와 한국어 1인칭 대명사의 대조를 통해서 한중 1인칭 대명사가 1대1로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가 ‘나’와 ‘우리’의 대해 오류를 많이 나오고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들의 용례를 분석하여 ‘나’와 ‘우리’를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용양상과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 오류 원인을 분석하고 화용론 측면에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중국인 학습자가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1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나’와 ‘우리’ 사용 양상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혔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중국인 학습자가 ‘나’와 ‘우리’를 사용할 때 한국어 모어 화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 질문과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인칭대명사 체계를 제시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 대우 대상에 따라서 제시된 용례를 번역하고 중국어와 한국어를 1:1 대응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공통점을 정리 하면 첫째, 형태적으로 보면 한국어 1인칭 대명사와 중국어 1인칭 대명사는 모두 단수와 복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둘째, 한국어와 중국어 1인칭 대명사는 모두 생략 현상이 일어난다. 셋째, 한·중 복수 1인칭 대명사는 모두 청자 포함성과 청자 배제성을 가지고 있다. 차이점을 정리하면 첫째, 형태적으로 사용양상을 보면 한국어 1인칭 대명사는 중국어 1인칭 대명사보다 훨씬 많다. 둘째, 한국어 1인칭 대명사는 사용 제약이 있지만 중국어 1인칭 대명사는 제한이

없다. 셋째, 한국어와 중국어 1인칭 대명사는 모두 생략 현상이 일어났다.

제3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실제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지를 만들어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 양상과 오류 양상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 ‘나’의 사용 양상을 보면 ‘호칭어 대신 지칭’의 용법을 모국어 영향을 받아서 중급 학습자부터 습득이 잘 되고 있다. ‘화자 지칭, 존칭 제약, 형태 변화’의 용법을 중급 보다 고급 학습자가 습득이 더 잘 되고 있다. ‘나’와 ‘우리’ 뒤에서 ‘명사류의 사용’한 용법에서는 중급부터 고급까지 습득되기 힘들다는 점을 보았다. ‘우리’의 사용 양상을 보면 ‘數의 사용’의 용법을 중급 학습자부터 습득 잘 되고 있다. ‘검정 표현, 화자 지칭’, 그리고 ‘나’와 ‘우리’ 뒤에서 ‘명사류의 사용’하는 용법을 나타내는 경우에서 중급 보다 고급 학습자가 습득이 더 잘 되고 있다는 점을 보았다. ‘존칭 제약’의 용법에서는 중급과 고급 학습자가 모두 습득되기 힘들다는 점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화용 정보의 제시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현재 교실 현장에서 사용되는 여러 한국어 교재에서 ‘나’와 ‘우리’의 용법이 초급 단계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화용적 설명이 교재 상으로는 극히 적게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대조 연구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어권 학습자나 중국어를 공부하는 한국어권 학습자가 올바르게 정확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의 능력이 한계로 인해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 양국 인칭 대명사의 화용을 더 완전하게 나타나기 위해 인칭 대명사의 변천 과정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부록>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1인칭 대명사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지의 개인 정보 등을 다른 용도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大家好,本論文以學習韓語的中國人爲研究對象,在學習韓語時第一人稱代詞如何正確使用爲研究目的,進行的問卷調查。問卷調查涉及到的個人情報絕對不用于別的用途,本人對於您百忙之中抽出時間進行問卷調查表示衷心的感謝。

다음에 본인의 정보는 작성 해주십시오. (*중국인만 작성해주세요.) 請在下面填寫您的個人信息。

| | |
|------------|--|
| 나이 | |
| 성별 | |
| 직업 | |
| 한국체류기간 * | |
| 한국어학습기간 * | |
| TOPIK 등급 * | |

다음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請在()里選擇您認為正確的選項。

※문장 밑에서 선택하는 원인을 고르십시오.

선택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
|--------------------------------|
| A.한국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 |
| B.내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다. |
| C.나의 모국어를 생각해서 선택했다. |
| D.잘 모르겠지만 그냥 선택했다. |
| E.기타: 원인을 직접 작성하세요. |

1. A: 어제는 너한테 미안했어, ()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B: 아니야, 내가 잘 못했어, 너희 잘못이 아니야.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2. A: 어제는 정말 좋았어, ()가 언제 또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니?

B: 그래, 나도 좋았어. 우리 다음에도 또 그런 자리 마련해 보자.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3. (철수가 엄마에게)

엄마, () 배고파, 밥 좀 줘요.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4. A: 이견 왜 사세요?

B: () 마누라가 좋아하는 거라서.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5. (할머니가 손자를 보면서)

아이고, () 새끼 얼굴 한 번 보자.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6. (동네 아저씨가 민수에게)

() 민수 많이 컸구나.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7. A: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봐도 () 나라 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B: 저도 우리나라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8. (A와B 싸우고 있다)
 A씨가 “왜 () 한테만 그래?”라고 소리를 질렀다.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9. (방송 진행자는 여성출연자에게)
 () 어머니께선 오늘 무슨 노래 준비하셨어요?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10. A: () 사무실 항상 깨끗해.
 B: 맞아, 그래서 기분이 좋아.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11. () 이제 그만 하고 집에 가자.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12. (어머니가 아이에게)
 ()는 청소를 하고 있어요.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13. ()는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14. (A와B 두 사람이 사진을 함께 보면서)
 A: 이 사람은 누구야?
 B: 이 사람은 () 동생이야.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15. 외국인들이 () 나라의 김치와 불고기를 제일 좋아한다.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16. ()도 다음 주에 서울로 가자.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17. (TV퀴즈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출연자에게)

() 최××씨는 조카들이 돼지 이모라고 부른다면서요.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18. A: () 회사는 야근이 별로 없어.

B: 그거 정말 부럽다.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19. A: 어제 뭐 했어?

B: () 남자친구 하고 같이 영화 봤어.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20. A: 너 왜 () 옷을 입고 있어?

B: 너무 예뻐서 입어 봤어요.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21. (교수가 학생에게)

지금까지 ()가 한 말 중에서 궁금한 게 있나요?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22~23 문제를 읽고 밑줄 친 부분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22. (엄마가 아들에게)

엄마가 용돈 줄게.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23.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들에게 야단칠 때)

“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니? 그건 위험하다고 절대로 하지마라고 했지?”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24. (친구 에게)

() 이집 삼겹살이 맛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저녁을 여기서 먹을까?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25. A: 내일도 운동하러 간다고?

B: () 마누라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26. A: 저 청바지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B: 저 사람은 () 동생이야.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27. A: 오늘 () 네 명 같이 점심을 먹을까?

B: 좋아, 우리 같이 우동 먹으러 가자.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28. A: () 이따가 어디 갈까?

B: 영화 보러 가자.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29. A: 내일 뭐 할 거야?

B: () 도서관 갈 거야.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30. A: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 되고 싶어?

B: ()는 나중에 커서 경찰이 되고 싶다.

①나/내 ②우리 ③모두 가능 ④모두 불가능 *선택하는 원인: _____

다음을 읽고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자연스러우면(O),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면(X)을 표시해 주세요.

讀下面的句子, 如果覺得自然的打(O) 覺得不自然的打(X)。

- () 1. A: 민수가 저번 주 제주도 다녀와서 좋다고 했는데...
B: 그래, 나도 다음 주에 제주도로 가자.
- () 2. A: 오빠, 우리 오늘 점심은 국밥 먹으로 갈까?
B: 나 짜장면 먹고 싶은데...
- () 3. A: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깨가 아프더라.
B: 우리 애가 좀 무거워요...
- () 4. (동생이 오빠에게)
주말에 뭐해? 우리 등산하러 가는데.
- () 5. (어머니가 아이에게)
나는 밥을 하고 있어요.
- () 6. A: 이걸 뭐예요?
B: 이게 이번 스승의 날에 내 지도학생이 선물한 거야.
- () 7. (오빠가 동생에게)
오빠가 도와줄게.
- () 8. (어머니가 민수에게)
민수야, 어제 얼마가 한 말 생각 안나?
- () 9. (학생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나는 먼저 가겠습니다.
- () 10.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제가 어제 말한 것 같은데, 집안 청소 봄 하라고.
- () 11. A: 사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 B: 그래요? 나 사무실로 오시라고 전해줘요.
- () 12. (언니가 동생에게)
내가 지갑 사줄게.
- () 13. (삼촌이 조카에게)
 아이고, 우리 조카 많이 컸구나.
- () 14. (정아가 강아지를 찾아서)
 아이고, 우리 강아지 여기 왔네.
- () 15. 나는 부산에서 태어났다.
- () 16. A: 오늘 우리 같이 운동하러 갈까?
 B: 나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되는데.
- () 17. A: 우리 이따가 뭐 먹을까?
 B: 피자 어때?
- () 18. (카페주인이 손님에게)
 밖에 있는 차는 내 차입니까?
- () 19. (방송 진행자는 남성 출연자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무슨 노래 준비하셨어요?
- () 20. 우리 이제 그만 연습하고 집에 가자.
- () 21. 나 오늘 여기까지 복습하자.
- () 22. 외국에 나오니까 우리 나라가 정말 좋다는 것을 알겠어.
- () 23. A: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어.
 B: 나도. 다음에는 내 동네에도 놀러와. 맛집이 많아.
- () 24. A: 우리 아들이 전교에서 1등 했어요.
 B: 진짜요? 축하해요.
- () 25. A: 왜 안색이 안 좋아?
 B: 우리 남편은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게임만 해요.

() 26. 어제는 오랜만에 우리 약혼자 만났어요.

() 27. (유일한 언니의 경우)

내 동생 혹시 못 보셨어요?

() 28. A: 내일 뭐 할 거야?

B: 나 도서관 갈 거야.

() 29. (직원이 부장님에게)

우리 먼저 퇴근해도 되겠습니까?

() 30. (학생이 선생님에게)

저희 시험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